

모교 홈커밍데이 행사 성황리에 개최

10월 14~16일
미주에서 23명 참가

특별 인터뷰

조태열(법대 75) 주 유엔 대사

Page 4



맑은 가을 날씨가 절정이었던 지난 10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풍산 마당 벵골에서 제38차 홈커밍데이가 열렸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번 홈커밍데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3,000여 명의 동문 가족들이 지방과 해외 등에서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모교를 찾았다. 여기에 행사 준비 과정에서 3,000여 명의 동문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억여 원을 지원하면서 아낌없이 모교 사랑을 표현했다. 홈커밍데이에 지원할 의향을 묻는 제안에 많은 동문들이 흔쾌히 응해왔고, 미처 모교와 동창회를 도울 기회가 없었던 동문들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처음 모교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던 덕이다. 그만큼 많은 동문들이 '홈커밍'의 의미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풍요로운 행사를 함께 만들었다.

접수처인 대운동장에서 벵골로 향하는 동안에는 순환도로를 따라 걷기대회

와 놀이마당이 진행됐다. 강산이 몇 번이나 변하고도 남은 시간, 모교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캠퍼스 구석구석 눈길을 주는 동문들의 얼굴에 새로운 감회가 이는 듯했다. 미주동창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박윤수(물리 48) 동문 또한 "감개무량하다"는 말로 모교 방문 소감을 표현했다. 미주동창회에서는 박 동문을 비롯해 윤상래(수의학 62) 회장과 오인환 전 회장을 비롯해 19명의 동문 가족이 참가했다. 전날 공덕동 SNU 장학빌딩과 천안 독립기념관을 둘러본 미주 동문은 본회 이형균-강인구 정팔도 부회장과 함께 본관 총장실을 찾아 성낙인 총장을 접견했다. 홈커밍데이 다음날에는 모교 학생 식당에서 재학생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후배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서정화 회장이 인사말에서 "그리운 벵골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이보다 기쁠 수가 없다"며 미주 동문들을 환영하자 참

석한 동문들도 큰 박수로 미주 동문들을 맞이했다. 서 회장은 이어 "올해도 여러분들의 수고로 이렇게 모교에서 함께 가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하며, 교분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며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움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성낙인 총장은 축사에서 "전 세계 모든 곳에 서울대 동창회가 결성돼 오늘 같은 홈커밍데이에 다 함께 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모교 학생들을 돕고, 모교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전 세계 13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아닌 동문님들께서 후배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가능했다"며 감사를 전했다. 화창한 가을에 어울리는 음악도 축제를 장식했다. 정재원(성악 09)박승민(07) 동문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Stein song', '오 솔레미오'를 부르며 활기차게 문을 열

었고, 동문 합창단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등 따뜻한 노랫말을 아름다운 하모니에 실었다. '포크의 여왕' 남궁옥분 씨와 전 해바라기 멤버 유익종 씨가 등장해 동문들과 '개똥벌레' '꿈을 먹고 사는 젊은이' 등을 부를 때는 낭만 섞인 저항이 풍미했던 시대의 향수가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행운권 추첨에서는 모두의 시선이 추첨자의 손끝에 집중된 가운데 최대 경품을 받은 동문이 뜻밖의 결실을 밝혀 좌중에 감동을 줬다. 행운의 주인공은 서정화 회장이 지원한 승용차에 당첨된 김주환(간호 66) 동문. 남편 민홍기(심리 61) 동문과 미국에 거주 중인 김 동문은 "어젯밤 남편과 '혹시라도 큰 경품에 당첨되면 기부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당첨됐으니 그대로 실천하겠다"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기부 의사를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박수진 기자 기사 편집]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캠페인

2017년 구독료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A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제38차 홈커밍데이 행사 (2017년 10월 14~16일)

임광수 (공대 48) 전 총동창회 회장님과의 인터뷰

미주동창회 회장 윤상래



Mrs 윤, 윤상래 미주동창회장, 임광수 전 총동창회장, 공대식 총동창회 부회장, 김승현

지난 10월 13일 금요일, 날씨는 선선하고 매우 상쾌한 아침이었다. 이제는 미세먼지도 잠잠해서 남산이라도 오르고 싶은 생각을 접고 거인이 기다리고 계실 종로로 향했다. 오늘따라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성남시에서 종로까지 2시간 반이 걸려서 G2 호텔에 당도하니 비서가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G2(Grand 2) 호텔은 임광수 회장님께

서 새로 중축해서 6개월 전에 여신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3개의 관광 호텔 중의 하나로 중부 경찰서 앞에 위치해 있다. 비서를 따라 2층에 위치한 식당으로 가니 임광수 회장님이 공대식 총동창회 부회장님과 계시다가 손짓으로 불렀다. "앉으세요." 서울에서 평생을 사셨는데도 아직도 충청도 사투리를 좀 쓰신다. 나는 알아마자 질문을 시작했다.

▶ 언제부터 서울대 동창회와 관련하셨나?

"공대 기계공학부 회장을 10수년 간 했다. (회장님은 기계공학을 전공하셨다.) 그후 공대 동창회장을 1998년부터 4년간 지냈고, 바로 이어 2002년부터는 서울대 총동창회장을 12년하였다."

▶ 서울대 총동창회장 재임시 가장 보람있던 일은?

"재산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시피한 동창회가 동창 회관을 지으므로 이제는 1,200억을 보유 하게된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종업원들이 차와 mini-pizza를 날라와서는 정성스레 권한다. 그리고 보니 회장님께서서는 작년보다 더 신수가 좋아 보이었다.

"나 이제 90이유."

▶ 건강 비결은?

"요새도 아침에 운동을 2시간 반하고, 한 시간 요가를 해요."

그리고 나면 매일 눈이오나 비가 오나를 고사하고 남산을 오르신다.

▶ 젊은 사람들에게 하실 좌우명 같은 말씀은?

회장님은 항상 겸손하셔서 큰 말을 쓰시는 법이 없다. 그래도 오랜 만에 만난 후배의 요구에, "그저 열심히 해라"라고 하신다.

회장님과 뉴욕에 계신 이준행 회장님의 우정은 71년이나 지속이 되는데 공대 다닐 때, 같은 학번으로 청주에서 올라와 이준행 회장님 자택 가까이서 하숙을 했던 까닭에 둘은 항상 행동을 함께 하였다. 한국 고전 무용을 함께 배웠던 것은 물론 영어 회화를 배우기 시작한 10개월 후에 6.25 사변이 터졌다. 회장님께서 배운 영어 회화는 인생에 전환점을 주었는데 당시 미 8군 사령부의 통역관으로 일을 하게 되신 것이다. 영어 실력 덕분에 승승장구 하셔서 교통부 5급 공무원까지 하셨으나 부친의 서거로 임광 토건을 맡게 된 일은 전에 들어서 아는 일이다.

▶ 앞으로 하실 일은?

"인천에서 가까운 섬을 개발하여 40만평 정도의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를 5, 6년 사이 지을 예정"이시다. 점심으로 스파게티를 대접받고 아쉽지만 바쁘신 회장님에게 다시 내년을 기약했다.

전체 일정

10월 14일 토요일

이른 아침, 공덕동 SNU 장학 회관에 모인 미주 동문들은 아침 식사를 겸한 다과를 대접받고, 윤상래 미주 회장이 임광수 전 총동창회 회장께 감사패를 증정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광수 회장은 동창회장으로 보낸 보람된 시간들을 이야기하며, 미주 동문들이 더욱 많이 모교를 기억하고, 열심히 동창회로 모여서 모교를 후원하기를 부탁하였다.

1층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준비된 서울대에서 지원된 학교 버스를 타고, 천안 독립 기념관을 방문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민국 박물관인 독립기념관은 겨레의 탐과 불굴의 한국인상이 박물관의 상징이라 한다. 일제 강점기의 수난과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운 독립운동을 테마로 만들어졌다. 겨레의 탐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후, 각자 자유시간으로 보고 싶은 곳을 돌아 보았다. 저녁 식사는 근처의 맛집으로 유명한 "시골 손두부" 에서 맛 있는 저녁식사를 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 회장이 모두에게 접대하였다.

10월 15일 일요일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행복 기부 콘서트' 참석하고, 7시 호암 교수회관에서 총동창회에서 배운 저녁 만찬이 있었다.

10월 16일 월요일

아침 10시, 서울대학교 미주동문 초청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캠퍼스 투어가 있었다. 정예술 (미대 2010) 대학원생과 감동삼 (농대 2010) 재학생의 친절한 설명으로, 서울대 관악 캠퍼스 전체를 둘러보며, 새로 생긴 건물들과 후원으로 지어진 건물들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홍보관을 잠깐 관람 한 후, 문화관을 돌아 보았다. 마침, 문화관에서는 서울대학교 개교 71주년을 기념하여 "도약의 나래를 펴라" 기획 전시회가 있었다. 서울대학교 기

록관장인 김태웅 법대 교수의 설명으로 2015년의 기획전시 주제인 '고등 교육의 새 요람, 서울대학교(1946-1953); 2016년의 기획전시 주제인 '지성과 역동의 시대를 열다(1953-1975)'에 이어 1975년 관악 교정 시기 이래 2017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펼쳐진 '도약의 시대' 전시를 보았다.

민족과 더불어 함께자 달려온 겨레의 대학에서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한 역사적 분기점에 선 서울대학교"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는 이 전시회에서 50년대 학번부터 80년대의 학번이 있었던 미주 동문들이 각자의 대학 시절을 웃으며 공감하였다. 11월 15일까지 열릴 이 전시회는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 있

목 차

-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 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1. 모교 홈커밍데이 행사 성황리에 개최
2. 임광수 (공대 48) 전 총동창회 회장님과의 인터뷰, 윤상래 / 전체 일정, 허유선
3. 제38차 홈커밍데이 행사 하보
4. 특별 인터뷰, 조태열(법대 75) 주 유엔 대사, 신윤남, 손대홍
5. 특별 인터뷰, 조태열(법대 75) 주 유엔 대사 / 행동경제학 2017년 노벨 경제학상, 백 순
6. 기고: 시카고 캠퍼스, 천양곡 / 프랑스장기 기증, 장동만
7. 기고: 치세의 근본은 현상, 정태영 / 서울대 윤전석의 책임, 이계성
8. Book Review, 도널드 트럼프의 위험한 경우, 이유성
9. 기고: 이지원 "AI Music" (part 2) / 남가주 음악대학 동창회 정기연주회
10. 지부 소식: 남가주 동문 합창단 정기공연, 뉴잉글랜드 동창회, 남가주 미대 동창회
11. 지부 소식: 뉴욕지역 동창회, 북가주지역 동창회
12. 지부 소식: 워싱턴 주 동창회, 조지아 동창회, 플로리다 동창회
13. 박윤수 동문 첫 시집 출간, 뉴잉글랜드 필하모니아 보스톤의 가을음악회, 테마사번 신간 출간
14. 기고: 수메르와 한국의 공통점, 최은관
15. 기고: 수메르와 한국의 공통점, 최은관 / 벽이 다시 열리려는가 서윤석
16. 기고: Haute Couture (High Fashion), Joseph-Marie Jacquard and Napoleon Bonaparte, 김용구

17. 기고: Haute Couture (High Fashion), Joseph-Marie Jacquard and Napoleon Bonaparte, 김용구
18. 행복론 (幸福論), 정해민
19. 이준행 "가발과 함께 걸여온 나의 86년 인생 (Part 3)"
20. 기고: 번역 문학의 맛과, 이원택
21. 기고: 번역 문학의 맛과, 이원택
22. 기고: 땅 냄새 강신용 / 번역 문학의 맛과, 이원택
23. 기고: 風流(풍류) 정양수 / 번역 문학의 맛과, 이원택
24. 기고: 삶의 슬기, 김기훈
25. 번역 문학의 맛과, 이원택 / 부고 정진목 동문 별세
26. 후원금 집계, 동창회비 및 후원금 납부 양식
27. 동창회비 집계
28. 미주 동문 업소록
29. 미주 동문 업소록, 종신이사회비
30. 제14대 미주 동창회 집행부 조직도, 2017 미주 지역 동창회 회장단 명단
31. 광고
32. 광고

제38차 홈커밍데이 행사 (2017년 10월 14~16일) 화보



서정화 총동창회 회장 인사말



임광수 전 총동창회 회장께 감사패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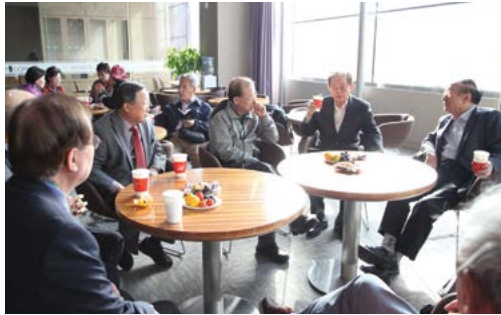
교정에서 기념 촬영



윤상래 회장 대신 테이프 커팅에 참여한 오인환 전 미주동창회장



모교가 제공한 버스로 캠퍼스 투어를 하는 미주 동문



모교가 제공한 버스로 캠퍼스 투어를 하는 미주 동문



개교 71주년 기념 기획전시회에서 기록관장인 김태웅 법대 교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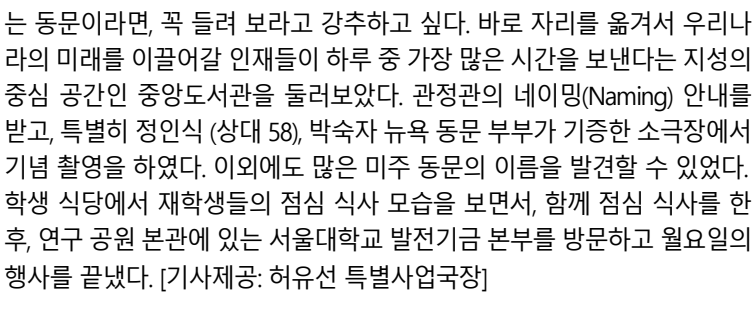
김주환(간호 66) 동문 자동차 경품 당첨 후 기부



"시골 손두부" 에서 저녁식사 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 회장 제공



천안 독립 기념관 방문



정인식 (상대 58), 박숙자 뉴욕 동문 부부 기증 소극장 방문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기념촬영

- 미주 동문 참가자**
- ▶ 시카고
김병연 (문리 65) 부부
- ▶ 남가주
박윤수 (문리 48) 부부
이소희 (의대 61) 부부
박인창 (농대 65) 부부
김창신 (사회 75) 부부
- ▶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의 62) 부부
박영철 (농대 64),
정선주 (간호 68) 부부
- ▶ 워싱턴 DC
오인환 (문리 63) 부부
박평일 (농대 69) 부부
민홍기 (문리 61),
김주환 (간호 66) 부부
- ▶ 뉴욕
박수안 (의대 57) 부부
허유선 (생과 83)

특별 인터뷰

조태열(법대 75) 주 유엔 대사



조태열 주 유엔 대사

"UN주재 한국대사인 제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분야나 이슈가 거의 없
을 만큼 우리의 국가적 위상은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 무엇보다도 동문 여러분들이 미국 주류사회에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주셔서 차세대들이 커다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는 한미학생회의의 한국학생 대표를 맡
기도 하였습니다.

* 선친께서는 청록파 시인이시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인이자 국문학자셨던 조지훈* 선생님이십니다. 혹시 선친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지요?

중학교 1학년 어린 나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유교적인 가풍이 짙은 집안에서 아버님도 근엄한 분이어서 애뜻한 추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북 번산 반도로 아버님과 기차 여행을 했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화상과 국제사회에 비친 우리의 모습에 큰 차이가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덕분에 이제는 삶의 수준이 국제적 위상 등 어느 면에서 보나 우리는 선진국이고 국제사회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 스스로를 개도국이나 중진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국제사회에 선진국과 개도국을 분류하는 규범화된 기준은 없기 때문에 해당국가가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선언하면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임을 스스로 선언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겠다는

문제, 그 속에서의 우리 역할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문이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0년간 총장으로서 남긴 업적들이 한국에서 아직 본격적인 관심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문제인데 이런 측면에서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군요.

*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ICBM의 개발,
그리고 이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지요?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모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EU 등 서방국가는 물론 상대적으로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던 중국도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

상이다. 중국의 국산 대륙누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제재가 성과를 발휘하려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북한의 6자 핵실험 이후 미국이 소위 세컨드리 보이콧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중전보도 더욱 단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도도 전혀 없지 않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서 핵실험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 국제사회의 목표인데 북한은 핵탄두 장착 ICBM으로 미국 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단계에 거의 도달

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명실 공히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이 뒤따라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 사회에 그런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UN주재 한국대사인 제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분야나 이슈가 거의 없을 만큼 우리의 국가적 위상은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엔 Peacebuilding Commission의 의장을 맡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서까지

아져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지역의 정세나 지구촌

* 미국에 살고 있는 미주지역 동문들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입니다만, 대대님께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울러 이는 자주국방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요?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은 상충하는 개념이

282호 | 2017년 10월 호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전환 문제도 그 일환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외교안보, 국방은 물론 이를 토대로 발전하는 우리 경제에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한미 간에 많은 현안이 있지만 모든 결정은 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원만히 처리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히 부상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외교가 과거 어느 때보다 창의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을 예견하며 한국의 엄청난 지정학적 위치를 지적했던 국제정치학의 대가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시카고대 교수는 최근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국론이 통합되어 있어도 헤쳐 나가기 힘든 외교적 환경에 처해 있다
--	--

* 김대중 정부도 햇볕정책을 추진했고
현 정부도 그런 기조를 갖고 있다고 생
각이 되는데, 유엔에 의한 대북제재 속
에서 정부의 그러한 기조는 어떤 결과
를 만들 수 있을까요?

새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출범 이후 줄곧 그런 기회를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도발이 계

대학을 졸업하고 외교부에 들어갔을 때 누님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두어달 만났다가 헤어져서 우 2년 정도 연락이 끊겼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신부감이 끝나 있는데 한번 만나 보겠느냐고 하시는 데 바로 그 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시 만나야 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1남 1녀를 두었는데, 끝말은 정미는 버지니아 대학을 나와 지금 삼성 리움 미술관에 근무하고 있고, 아들 상균이는 존스 홉킨스대를 나와 한국에서 군복무를 잘 마치고 지금은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분자생물화학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미주 동문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도 많은 서울대 동문들이 현지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문 여러분들이 미국 주류사회에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주셔서 차세대들이 커다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모국인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 있는 여 업중중 안보 위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론통일에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국제사회에 비친 우리의 모습과 스스로에 대한 실제 우리 인식간의 간극을 좁혀 가는 데 있어 이곳에 사시는 우리 동문 여러분께서 중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

* 조지훈(趙芝薰) 시인

청록과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며 전통적 생활에 깃든 미의식을 노래했다. 본관은 함양. 본명은 동탁(東卓).

8·15해방 직후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현영과 전주이씨(全州李氏)인 어머니 사이의 4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만형 동진(東振)은 오절했으나 '세림집시'를 펴낸 시인이었다.

대학교 문과에 입학해 <백지> 동인으로 참여했고, 조연현 등과 친하게 지냈다. 1941년 대학을 졸업하고 일제의 탄압을 피해 오대산 월정사에서 불교전문강원 강사로 있었고, 이때 <금강경오가해 金剛經五家解>·<화엄경> 등의 불교서적과 노장사상, 당시를 즐겨 읽었다. 1942년 조선어학회 <큰사전> 편찬위원으로

어려서 할아버지에게 한문을 배운 뒤, 어 신문을 받았다. 이듬해 고향으로 내려



백 순 (법대 58)

행동경제학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지난 10월 9일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미국 쉬카고 대학 부스 경영대학의 교수인 리처드 텔러(텔레)에게 1988년부터 시작된 노벨 경제학상 2017년판을 수여하였다. 그는 2008년 베스트 셀러 '팔꿈치로 짜름: 건강과 부와 행복의 결정을 잘하기'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제목의 책을 출간하였고, 2015년 *더 부존* (The Big Short) 제목

의 영화에 출연하여 2008년 경제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등 경제계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경제학자이다. 리처드 델라 글렌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것은 노벨 위원회가 “그는 경제학을 보다 인간적으로 만 들고 있다” 라고 발표한 바와 같이 경 제 행위의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인 간 행동에 중점을 두는 ‘행동 경제학’ (Behavioral Economics) 을 일생 연구하 고 제창하여 왔기 때문이다.

행동 경제학이란 인간의 경제 행위를 결정에 있어서 인간의 심리상태가 중요한 결정적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경제학 이론이다. 지금까지 주류경제학은 인간은 특히 경제행위의 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으로' (Rationally) 한다고 하는 가설을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 (Predictably Irrational) 으로 경제 행위의 결정을 수행한다고 하는 주장을 리처드 테일러는 제창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에서 떠나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 경제학의 이론을 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처드 테일러의 행동 경제학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을 관찰해 보기로 한다.

첫째 사업이나 재산증식의 투자를 할 때에 손실의 가능성에 염두를 두지 아니하고 지나친 확신과 성공에 집중하는 '동물정신' (Animal Spirit) 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한미전의 경제적 격차는

하지 마디하고 과신과 반영에만 집중하는 기업들의 동물정신은 이미 오래 전에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메이냐드

가 지내다 8·15해방이 되자 다시 서울로 와서 명륜전문학교·경기여자고등학교에서 강의했다.

1946년 전국문필가협회 중앙위원 및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고전문학부장을 역임했고, 1947년 동국대학교 강사를 거쳐 고려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6.25전쟁 때는 문충국대 기획위원장으로 중부전선에서 종군했고, 1961년 벨기에에서 열린 국제시인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했

케인즈가 제창한 것으로,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하우징 버블 등과 같이 자산가격의 상승만을 기대하는 동물정신에 기인한 경제위기를 말해 주고 있다.

둘째 주어진 소득이나 물가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한다는 주류경제학의 이론에 따르지 아니하고 갖고 있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기정체성(Self Identification)과 자기과시(Self Actualization)를 표출하기 위하여 물품구입과 소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과소비 가 바로 비합리적 경제행위를 들어 내 주고 있다.

셋째 사람들은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소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유 효과'(Endowment Effect)가 비합리적인 경제행위의 결정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모든 돈이 동등한 가치를 갖고 태어났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의 소득이 미래에 갖게 될 소득보다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제 행위의 결정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현재 소득 활용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소득 증진 보다 더 무게를 두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지향하고 “더 저축 후일을 위하여”(Save More Later)라는 경제 정책의 제안을 리처드 델러는 재정장관을 이끄렀고, 고용인이 은퇴 저축 프로그램에 자동 참여하는 IRA 설립정책개발에 공헌을 하였다.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의 심리상황을 경제학에 접목시킨 행동경제학은 2008년 대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학 분야로 앞으로의 큰 발전을 바라보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상금 1백 1십 만 달러를 받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라는 기자 질문에 리처드 델러는 “나는 그 상금을 가능한 한 비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전 미국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교수).

다. 1963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초대 소장이 되면서 시시거기보다 《한국화사대계》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힘썼다. 그해 1965년 성균관대학교 대중문화연구원 편찬위원, 1966년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집위원, 1968년 한국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1968년 사망하여 경기도 양주군 마석리에 안장되었고, 1971년 서울 남산에 시비가 세워졌다.

[출처: DAUM 백과]



천양국 (의대 63)

시카고 컵스

금년에도 시카고 컵스가 월드시리즈 플 레이오프 전에 진출했다. 이글이 실리는 때는 이미 챔피언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해마-측 두엽-전두엽으로 이어지는 기억회로의 어느 선상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감동의 기억을 지금의 삶에 접목시켜 환영하고 싶어서다.

시카고가 뜨거운 열기로 달아 올랐을 때는 두번 있었다. 하나는 1871년 10월 8일 어느 집의 소 외양간에서 시작한 불꽃이 10월의 바람에 날려 시카고 시 거의 절반을 태웠던 대화재의 열기, 다른 하나는 작년 11월 4일 다운타운에서 열렸던 컵스 월드시리즈 챔피언 축하 퍼레이드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함성의 열기였다.

컵스는 중요한 게임을 운이 없어 번번히 놓치고 오랜기간동안 우승을 못했다. 1908년 월드시리즈 게임을 보려고 한 시민이 자신이 기르고있는 염소를 데리고 경기장에 들어가려다 거부를 당한 이래 챔피언 전에도 끼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



를 염소의 저주라고 불렀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도 팀의 마스코트인 인디언 추장의 색깔을 바꾼이래 지난 몇십년동안 우승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추장의 분노 때문이라 말한다. 드디어 컵스가 작년에 염소의 저주를 물리치고 108년만에 감격의 우승을 한 사건은 미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다. 결승 7번기 마지막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8대 7로 이겼던 것이다. 영화로 말하면 정말 손에 땀을 쥐게하는 스릴러였다. 컵스의 염소는 이제 늙어 힘을 쓰지 못했는데 클리블랜드 인디언 추장은 젊어서인지 아직도 분노를 거두지 않았던 모양이다. 20년전 시카고 볼스 농구팀이 우승을 했던 게임을 TV로 보다가 심장마비로 변을 당한 친구의사가 생각나서 7번 경기 때문에 혹시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람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보도는 없었다.

너무나 기다렸던 승리, 한이 맺힌 월드시리즈 우승은 시카고 시민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나도 그날 축하 퍼레이드에 참석하러 집 근처의 메트로 역으로 나갔다. 승

객들이 만원인지 몇대의 기차들이 역에 정차 하지도 않고 지나갔다. 다행히 시의 특별한 배려로 마련해준 기차에 올라가 카스로 다운타운 유니온 스테이션에 도착하여 행사가 열리는 미시간 호 그랜드 팍 쪽으로 향했다. 걸어가는 길목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있었다. 생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적이 없었다. 보도에 의하면 그날 500만 이상이 모였고 유사이래 3 번째로 많이 모인 관중수라는 것이었다. 행사가 열리는 있는 공원안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고 도심지 거리에는 군중들의 함성과 노래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는 것 같았다. 승리 깃발을 흔들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 나팔과 북소리의 행렬이 끊임없이 줄을 이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기쁨에 들떠있는 군중들은 "Go, Cubs, Go Chicago"를 목소리가 터지도록 외쳤다. 내옆에 서있던 어느 노인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도 보았다. 먼저 세상 떠난 아내를 생각하지 않나 하는 나의 상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카고 근교의 세미터리 묘지를 앞에 수많은 꽃다발들이 널려져 있는 신문기

사 사진도 실렸기 때문이다. 500만 인파의 기쁨의 함성과 노래소리, 북소리는 컵스의 우승을 보지 못한채 지구촌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듯 미시간 호수 건너 저쪽 디트로이트까지 뒤흔 날아가고 있었다.

행동심리 학자들은 인간은 이성애 근거를 둔 합리적 사고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뇌가 과거의 경험과 체험, 현재의 인간관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등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잘 처리해서다. 즉 인간의 뇌가 스마트해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환자들을 보아오면서 또는 나자신을 돌아봐도 인간이 정말 합리적인 동물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합리적이면 그에 합당한 선택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잘못된 경우가 허다했다. 임마누엘 칸트가 아무리 이성을 찾으라고 외쳐봐야 소용이 없었다. 미식 축구팀 시카고 베어스의 금년 경기 성적 같이 5번 싸워 겨우 1번 이길 정도로 합리적 선택은 그리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인간은 주로 지나간 과거와 경험을 토대로 한 감정적 사고를 통해 세상일을 처리



장동만 (문리 55)

프랑스 장기 기증

프랑스에선 올 해 (2017년)부터 아주 파격적인 법이 시행된다. 사람이 죽을 때 "장기 기증을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모든 사망자를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게 된다. 이를 좀 더 설명하면 이렇다. 한국이나 미국에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을 해야만, 죽은 후 일정 조건 하에서 그 사체에서 장기를 적출,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시행되는 법은 그 반대로, "죽은 후 장기 기증을 거부한다."고 생전에 그 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않는 한, 유가족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장기 기증/적출에 동의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프랑스 의사들은 사망자가 장기 기증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았다면, 가족과 이를 상담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죽으면 한 중의 흙/재가 될 몸뚱아리, 무위로 돌아가기 전에 기왕이면 "사회 공익을 위해 쓰자."는 그 취지에는 공감이가 면서도 뭔가 뒷맛이 영 개운치가 않다. 이 법은 곧 국가가 개인의 주검을 관리,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 기저 (基底)에는, 장기 적출/이식도 그렇지만, 사체는 생명과는 무관한 한낱 물체로 간주하는 물질주의 (materialism) 철학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비정(非情)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죽은 후, 내몸은 국가 소유?

여기서 또 인간의 죽음/주검과 자연의 순리, 조물주의 섭리를 생각해 된다. 죽으면

육체는 무(無)가 된다. 그렇다고 그 과정에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가 자의로 개입, 아무렇게나 이를 다루어도 좋을 것인가? 더욱이나 만물의 영장 (靈長)이라는 인간의 생명, 그 생명의 사후를 국가가 이렇게 멋대로 처리해도 좋을 것인가? "살아도 인간, 죽어도 인간"이라면 이는 국가 권력이 개인 생명에게 가하는 월권적인 횡포가 아닐까?

프랑스에선 죽은 사람의 유가족 3분의 1 가량이 장기 기증을 거부한다고 한다. 한편, 현재까지 '장기 기증 거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약 15만 명에 달한다. 네덜란드에선 지난달 초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터키에서 환자 8 만 6천 명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고, 매일 16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다고 한다. 이 곳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장기 기증을 서약한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자못 궁금하기도 하다.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신체발부 수지부모 (身體髮膚 受之父母) 불감훼상 효지사야 (不敢毀傷 孝之始也)라 했다. 자신의 골격, 터럭, 피부, 장기는 모두 부모로부터 받았으니, 이를 감히 훼손하거나 다치지 않는 것이 효도라는 가르침이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나 많이 변했다. 살아서는 얼굴을 마구 뜯어고치고-그래서 죽은 후 천당 문 앞에서 문지기에게 ID 확인이 안돼 쫓겨난다는 웃으개까지 생겼다. - 죽어서는 내 몸을 국가가 임의로 가져다 쓰겠다 하고... 도대체 "뭣이 뭘지?" 종잡을 수 없는 참으로 '혼돈의 시대'다.

<https://dmj36.blogspot.com>

한다. 문제는 자신의 체험과 경험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 또 난해 스마트하지만 동시에 더미(Dummy)처럼 바보 멍청이 짓을 많이 한다. 그런 바보 멍청이 짓도 창의성을 가진 사람의 뇌 속에 숨어 있으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금년의 노벨 경제학상은 심리학과 경제학을 연결하여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찾아보려는 시카고 대 심리행동경제학자에게 주어지게 한 예다.

앞 구절을 고넨 목적은 나의 시카고 컵스에 대한 맹신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다. 대부분의 미 스포츠 전문 미디어들은 금년의 월드시리즈 챔피언으로 LA 다저스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꼽는다. 그런

데 컵스가 금년에도 우승할거라는 합리적 사고가 아닌 나의 맹신은 다음 3 가지 생각으로 부터 나온다. 첫째는 내 뇌다. 기억에 가까웠던 작년의 컵스 승리체험이 내 뇌세포속에 너무나 강렬히 박혀있다. 둘째는 내 아들이다. 지금은 시카고를 떠나 텍사스 오스틴에 살고 있는 40이 다된 아들이 아직도 열렬한 다이 하트 컵스 팬이다. 아버지로서 컵스의 우승을 바라는 아들과 심리적 동일화를 꾀하려는 소망이 나의 무의식 속에 깔려있을 것이다. 셋째는 염소의 저주다. 오래 전에 죽은 염소의 혼도 이제는 병들고 치매에 걸려 더이상 컵스를 괴롭힐 수가 없을 것이다. 비합리적 사고로 노벨상을 탄 교수같이 컵스에 대한 나의 맹신도 2017년에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태영 (문리 71)

치세의 근본은 현장

몇 년 전 동두천에 산다는 아중마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다. 한탄강이 범람하고 마을 하수구가 막혀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큰 피해를 본 직유했다. 정치적 모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요 화제는 정치, 행정 뭐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화두가 되었다. 그 아주머니가 말했다.

“요즘 공무원들은 차타고 왔다가 씩 가요.”

공무원들이 시골 마을을 방문하거나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가 등을 파악하러 더러 오긴 오는데 차를 타고 온다는 것이다. 이어 “차를 타고 오니, 저들이 뭘 알아요”라며 비판적으로 톤이 바뀌었다.

“걸어서 다녀야 천천히 이것 저것 살펴보고 알 수 있지요.” 주민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냥 차타고 씩 한 번 둘러보고 가니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요.” 즉 그냥 왔다가는 시늉만 하지 수박 겉핥기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일부 공무원들은 주마간산식으로 현장을 살펴보고 사무실에 돌아가 탁상행정을 펼친다. 마치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말이다.

사마천의 사기 진시황 본기(本紀)를 보면 눈에 띄이는 대목이 있다. 진시황이

끊임없이 지방 순시를 다녔다는 점이다. 죽음도 지방 순시 중에 맞았다. 중국의 크기를 보면, 도로는 물론이고 교통수단도 현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시대에 그처럼 멀리 몇달이고 지방을 다녔다는 것을 보면 그 의지와 투지, 의욕이 대단했으리라 짐작된다. 그 당시에 무슨 냉장고가 있어 음식을 제대로 먹었을 것이며 무슨 약이 그리 발달해서 오랜 여행 중에 건강상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야말로 모험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신변 안전도 보장되지 않았다. 사기 기록의 한 토막을 보자. [시황] 29년.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행했다. 박랑사(博狼沙)에 이르렀는데 강도의 습격을 받아 크게 놀랐다.” 여기서 강도는 바로 후에 유방의 책사가 되어 또다시 천하를 통일한 장랑(張良)이다.

진시황은 나이 39세에 천하를 통일했다. 그때부터 그는 매년 지방을 순행했다. 사기 기록을 보면 한 번 순시를 나갈 때 마다 3-4개월 씩 걸리곤 했다. 어떤 때는 1년이 걸리기도 했다. 중국 회계산에 세운 진시황 공덕비에는 “재위 37년 동안 몸소 천하를 순행하며 먼 곳까지 두루 다녔다.”라고 적혀 있다. 사기의 기록은 이어진다. [즉위] 26년에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하시고... 몸소 먼 곳의 백성들까지 순행하시며...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 주무시며 천하의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야행(夜行)도 했다. [시황] 31년.



이계성 (정치 77)

서울대 윤전석의 책임

모교 서울대학교가 안팎으로 시련과 도전에 처해 있다. 안으로는 시흥캠퍼스 조성 문제를 놓고 학교 당국과 학생들 간 갈등이 이어지고, 밖으로는 서울대에 대한 시선이 굵지 않은 가운데 폐지 또는 위상 변경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의 윤전석에 얹아 안팎의 위기를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주체는 누구인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서울대도 대학 본부와 교수, 학생이라는 3주체를 축으로 운영된다. 교육 당국의 입김과 일반 여론의 지원 혹은 압력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3축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자율적으로 대학을 이끌어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 3축이 서울대 윤전석의 주인이 되는 게 당연하고, 3주체가 유기적으로 한 몸체를 이뤄야 서울대를 잘 운전해 나갈 수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모교가 겪고 있는 위기는 이 3축

함양에서 신분을 숨기고 다니려고 밤에 외출했다가 강도를 만나 위험에 빠졌다.” 그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끊임 없이 지방을 돌아 다녔다. 아마 진시황의 통일 제국 유지의 비결이 바로 끊임 없는 현장 순시 때문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진시황은 개혁을 단행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청송하거나 개혁에 거부하는 책들을 불살랐다. 그리고 이에 반항하는 학자들은 생매장하였다. 의학, 농업 등 실용적인 책만 남겨 두었다. 이때문에 후세 유학자나 역사가들의 끊임없는 증오와 폄해를 받아왔다.)

중국에서 태평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요순(堯舜)시대의 순 임금도 정사를 맡자마자 동서남북 순시부터 시작했다. 사기 오제 본기에는 순 임금이 “5월에는 남쪽을 돌며 시찰했고, 8월에는 서쪽을 돌며 시찰했으며, 11월에는 북쪽을 돌며 시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동서남북 순시를 “5년에 한 번씩 했다.” 결국 순은 “남쪽으로 순행하다가 창오(蒼梧)의 들에서 죽었다.” 이 때가 대략 기원전 2,200년 전 이야기다. 그들은 끊임없이 한반도의 수습 강도는 바로 후에 유방의 책사가 되어 또다시 천하를 통일한 장랑(張良)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방곡(방에만 곡 박혀 있는 것)’도 한 요인인 것 같다. 밥도 혼자 방안에서 먹었다니... 그가 다만 좋아한 것은 외국 여행 뿐이었다. 재임시 특하면 외국 방문을 했다. 당시 필부의 눈에는 “저 사람, 즐기고 있구나. 대접 받아가며 국가 돈 써 가며 호화 여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주로 구중궁궐 안에서의 “지시 정치”를 선호했다. 뉴스보도는 특하면 “박 대통령이 오늘 내각에 무엇무엇을 지시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현장 정치”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서울에서 제주도 만큼이나 멀다.

그는 야행(夜行)도 했다. [시황] 31년.

간 불통과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21세기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대학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학문을 탐구하는 상아탑으로서의 전통적 기능에만 머물 수 없게 한다. 시흥 캠퍼스는 그런 시대 변화에 부응하려는 모교의 새 비전일 것이다.

성낙인 총장이 지난 8월 발표한 ‘시흥 캠퍼스 협의회 종료에 즈음한 담화문’에는 그 기본 방향이 담겨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기술 스마트 캠퍼스’ ‘인류 문명과 사회 발전을 탐구하는 문화·사회·예술 융복합 캠퍼스’ ‘통일을 대비하는 통일·평화·인권 캠퍼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본의 논리에 의한 대학의 상업화’라는 이유로 시흥 캠퍼스 건립에 반대해 왔다. 정교한 재정·운영 계획 없이 지자체와 대기업에 의존해 사업이 추진돼 온 것은 문제다. 하지만 대학 본부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마련한 대학 발전 비전을 자본의 논리와 같은 단

북한을 보면 좀 흥미로운, 시셋말로 ‘연구 대상’인 대목이 몇 건 보인다. 3대 세습의 성공이다.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가 그들도 끊임없이 지방 순회를 했다는 점이다. 김정일의 경우 당시 보도되는 내용 대부분은 ‘어디 어디를 방문했다’ 뭐 그런 내용이었다. 공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군대를 방문하기도 하고 하면서 김정일이 ‘현장을 방문하고 지도했다’ 뭐 그런 내용이었다. 그런 뉴스를 김정일 통치 기간 내내 보아오면서 나는 ‘맛아, 끊임없는 현장 순시 방식이 북한에서 독재 권력을 그것도 세습까지 하게한 비결이다’라고 생각하였다.

김정은은 지금까지 죽자고 군대만 시찰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현장만. 미국도 놀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가 아마 그러한 현장 다그치기 결과인 것 같다. 그렇게 군대만 방문하고 다니다 나서는 “저러다가 어느 한쪽이 새는 지 모를 것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니 이제는 신발 공장 등 산업현장 순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의 표현대로 ‘스마트 쿠키(똑똑한 녀석)’ 측면도 있는 것인가? 그러나 별로 돈도 없어 보이는 나라에서 돈을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평평 쓰는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또한 모든 것을 ‘자기 소유=자본주의’로 하고자 하는 태고 이래의 인류 속성을 간과한 공산주의를 아직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별로 스마트 해 보이지는 않는다. 인민 평등을 핑계로 무제한의 권력과 독재를 즐길 뿐이다. 게다가 시대착오적인 아이언 커튼까지 치고 있다.

어쨌든 권력은 절대 제도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 주위 사람이 지켜 주지도 않는다. 본인이 유지하는 것이다. 본인 능력에 달려 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이 새삼스러워 진다.

선적 사고로 재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점거 등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을 일은 더욱 아니다. 유한한 시간 학교에 머무는 특정 시기의 학생들이 장기적인 대학 비전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공간에서 장기간의 점거 농성과 물리적 충돌, 고발과 중징계 사태가 벌어지도록 대화와 소통,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근본주의적인 독선과 야집, 일방통행의 결과다. 서울대의 윤전석에 얹은 주체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10년 넘게 끌어온 시흥 캠퍼스 갈등을 지혜롭게 정리하고 세계 일류 대학으로 도약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게 서울대 폐지란 같은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이유성 (사대 57)

[Book Review]

“도널드 트럼프의 위험한 경우 (The Dangerous Case of Donald Trump)”

*책제목: (위와 같음), *저자: 이반디 (Bandy Lee),
*출판국: 미국, *사용언어: 영어, *주제: Donald Trump, 정신건강, 정치, *장르: 넉픽션, *출판사: Thomas Dunne Books, *출판/출시날짜: 2017년 10월 3일, *쪽수: 320, *ISBN: 978-1250179456, *책값: \$27.99 (\$16.79 at Amazon.com)

이반디 (Bandy Lee, MD, MDiv, 정신과 전문의; Yale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임상교수) 씨가 편저로 펴낸 책이 지난 10월 3일부터 출시되었다. 이 책에서는 27명의 정신과 전문인(학자), 심리학자, 기타 정신건강 전문인들이 모여서 미국 대통령 Donald Trump의 행동에 기초한 정신건강 상태를 사정평가하고, 염려되는 트럼프의 상태에 관한 27명의 견해를 요약하는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들은 대통령의 정신건강 상태로 인하여 미국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고있으며, 트럼프의 대통령직이 의미하는 바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Goldwater Rule’(정신과 전문의들이 공적인 인물에 대하여 개인적의 검사/면접상담/진찰 없이 전문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은 반윤리적이므로 삼가야한다는 규칙)을 뚫아나갔다고 허용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의 또다른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트럼프의 대통령선거 캠페인 초기부터 그의 말과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직업의식으로 직감하는 그의 행동을 계속 연구하는 동안, 여러 동조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공론화시켰다. 지난 3월에 저자가 소집해서 Yale대에서 열린 ‘Duty to Warn 키퍼런스’에서 논의된 2 가지 의제는 (1) Trump가 뭐가 나쁜가? (2) 만일 대통령이 위험해서 대통령 자리에 부적합하다면, 건강의학 전문인의 책임 속에 이를 ‘경고해야할 책임(duty to warn)’도 포함되는가?였다

“트럼프는 확실히 많은 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많은 동료들은 트럼프가 그의 결점을 광범위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위험한 것은 정신적 결함으로 인한 불안정성, 예측불

확실성, 충동성을 말한다. 예를들면, 북한을 비롯다든지, 군의 공격이 수일내에 실행됐든지. 그는 갑자기 충동적으로 시리아를 폭격했고, 다음에는 모든 폭탄의 모폭탄(mother of all bombs)을 투하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쇼에서 만족을 나타내는 등은 아주 다루기 힘든 트러블로 보인다.” 트럼프의 정신이상을 기재할 때 흔히 쓰이는 전문용어는, 자기도 취증, 반사회적 증세, 편집증세, 착각증세, 악성도취증세, 치매의 초기증세 등인데, 어떤 전문인은 어느 한가지씩이 아니라, 여러 증세가 합쳐진 무서운 합병증이라 진단한다. 주디스 허맨(Judith



이반디 (Bandy Lee, MD, MDiv)

Herman)과 로버트 제이 리프턴(Robert Jay Lifton)은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과 트럼프가 위국면들을 돌파할 적에 대통령 이기에는 적합하지 않게 반응하는무능력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요지머처럼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고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의 말발폭탄을 쏟아내며,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모든 군사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있다고 으름장을 띄는데 트럼프의 정신건강 이상이 혹시나 전쟁으로 촉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점증하는 지경까지 와있다.

저자는 트럼프의 이러한 사안은 ‘가만히 있는 것이 답’이 아니라, 발설하는 것(speak out)이 정신건강 전문인의 의무라고 말하면서, 만일 우리가 다루는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하거나 타인에게 위

험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그 사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될 다른 사람에게도 경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말한다. 대통령이 갖는 심리적 위험성이 나라에 위태로울 경우, 우리는 국가적 비상사태임을 경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한다. 저자는 ‘Duty to Warn’이라는 기치아래 그의 정신건강상태를 충분히 경고하는 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전문인들의 연합체가 형성되어 3,745여 명을 확보하였고, 존 가티너(John Gartener)는 비슷한 탄원서를 website에 올리고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10월 3일 현재 63,377 서명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알려졌다.

저널리스트 존 샤먼(Jon Sharman)과 인터뷰한 저자의 얘기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트럼프에게 정신건강 이상이 있다면, 이를 도덕적인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고발하는 것도 아니다. 정신건강 이상이 그에 대한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되지만, 마치 사무실에서 개인의 능력이 감소할지도 모른다는 의학적인 사안처럼, 염려로서 상기시켜야한다. 나는 실제로 이것이 정치화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어떤이가 암을 가졌거나 무능력하다는 것으로 분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신건강도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 어떤 권좌에 있는 개인의 정신적 불안정성이 존재함은 우리의 생존과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의 위험스러움을 사정평가하는 것은 개인분석을 하는 것과는 아주 달리, 개인과 그 개인의 잠재적 희생자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일이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은 순전히 정신건강의 학의 전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현직 대통령을 다루고 있으므로 정치적 영

향이 너무 커서 정치서적으로 둔갑하며 정치권의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직접 영향을 받는 본인과 그 지지자들은 애써서 내용을 폄하하거나 무례함을 앞세워 저자의 악점을 까발리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다른 한 편(예: 민주당)에서는 이를 빌미삼아 자기들의 입지를 넓히려는 시도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의회 민주당의원을 일부는 저자에게 트럼프의 정신건강의 조연을 제공하는 전문인 패널을 형성하자고 접근하였다.

저명한 저널리스트 빌 모여즈(Bill Moyers)는 이 책보다 더 긴급한, 더 중요한, 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책이 이번 가을에 출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하였다. 그 만큼 긴급하고 중요함을 강조하며 극찬하였다. 그는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학자 로버트 제이 립턴(Robert Jay Lifton, 91세)과의 장시간 인터뷰에서 저자의 책 내용 외에도 그 주변의 논쟁가리들을 소상하게 해설해 주며 저자를 지지하고 있다.

물론, 반대로 혹평하는 견해도 있다. RealClearPolitics 매체에 기재된 칼 캐논(Carl M. Cannon)은 로버트 제이 립턴이 쓴 이 책의 ‘책을 내면서(Foreward)’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트럼프의 악점에 관한 것을 세계를 향하여 ‘경고하지 않는’ 임상인들은 모두 독일 아우스비츠수용소에서 근무한 나치(Nazi) 의사와들처럼 비슷하다’는 통속극적(melodramatic)인 견해를 나타낸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면허증 없이 의료진료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며, ‘이 역사적인 비교는 트럼프의 교란증후군(Derangement Syndrome)이 없다는 것(de facto)이고 – 편집증 환자같은(paranoid) 위풍당당함(grandiosity)’이라고 말했다. 캐논은 이 책의 더 좋은 제목이라면 아마도 ‘27명의 성난 민주당원, 즉, 트럼프에 반대표를 던지려 한 번도 그를 만나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가 미쳤다고 말하는 고급학위(advanced degrees) 소유자들’이라고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비교었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의학계와 언론계,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하며 논쟁은 계속될겠지만 그 중요성 및 위급함의 경고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시의 적절한 명저(?)가 나온 것 같아 여러분도 이 책의 독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한국에서 이민와서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우뚝 선 한인(Korean-American 15세) 여성 학자이다. 이번에 의미있는 큰 일을 해낸 딸의 성취를 대견해하며, 아버지는 뒤에서 미소를 짓는다.



이지원



AI Music (part 2)

오래전부터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은 음악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다. 1차산업혁명의 인쇄술 발달로 음악세계에서는 악보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는 철강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며 악기가 발달하여 연주가 편리해지고 화려한 기교의 곡들이 작곡되고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또한3차산업혁명의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녹음, 소리의 재생, 음악의 디지털화, MP3, 전자 악기 발명 등에 영향을 주었다. 우리는 현재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며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로봇공학(Robotics), 센서(Sensor) 등의 새로운 기술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기술들이 음악분야에도 자연스럽게 접목되면서 인공지능 음악(AI Music)이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음악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오고 있는지 AI Music의 State of the Art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AI Music: The state of the Art

음악은 크게 연주, 악기, 작곡 3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현재 어떻게 접목이 되고있고 앞으로 음악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보도록 하겠다. 첫번째로 음악에서 공연을 하는 연주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될까? 인공지능이 연주를 하려면 어떠한 형태의 하드웨어로 구현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로봇이 악기를 연주 하거나 지휘를 하는 형태이다.



Toyota Motor Corporation (TMCo)에서는 일찍이 트럼펫, 드럼 등을 연주하는 humanoid 로봇을 개발 하여 2005년 데뷔 연주를 가졌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로봇은 현재 비브라토까지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Ashimo는 Honda에서 개발한 humanoid 로봇으로 디트로이트에서 공연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2008 년 “The Impossible Dream”이란 공연에서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이 외에도 일본의 Z Machines 와 독일의 Compressorhead 는 로봇 록밴드로 정확하고 속도 면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테크닉을 발휘하고 있다.

그럼 음악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차지하는 악기는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다. 핸드폰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앱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음악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아노, 기타, 드럼, 트럼본, 플루트 등의 악기들이 앱으로 구현이 되며 대중들에게 경제적으로 구입이 어려웠던 악기들이 핸드폰을 사용한 악기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Smule에서 개발한 Occarina는 실제 악기와 같이 핸드폰에 바람을 불어넣어 소리를 내는 형태로 구현이 되었고 연주에 따른 자동반주생성 및 센서를 통한 비브라토도 가능하다. Max/MSP의 Invisible Violin 은 실제 악기와 활 없이도 센서를 통하여 Violin과 같은 형태의 연주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악기의 구현은 실제의 악기보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예전 악기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 경제적 측면, 이동의 어려움,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 등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며 음악을 취미로 즐기는 아마추어들이 보다 쉽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작곡은 현재 스타트업 및 회사들이 가장 많이 인공지능을 음악에 접목시켜 상용화 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인공지능이 작곡을 하게 되며 많은 광고회사, 영화제작사 또는 게임 스튜디오 등이 사운드 트랙으로 사용되는 음악을 경제적이고 빠른 시간

남가주 음악대학 동창회

정기연주회 개최



지난 9월 9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최명용, 음대 64)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협찬으로 정기연주회가 LA다운타운에 위치한 지퍼 콘서트홀(The Colburn School Herbert Zipper Concert Hall)에서 열렸다. 최명용 회장은 “이번에는 전국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대 음대 출신 젊은 음악가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열게 되었다. 개개의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티스트들마다 솔로 연주를 선 보일 예정이며 피날레에서는 5중주의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주된 곡들은 다음과 같다. 안소연 동문은 Earl Wild 작곡 “Etude No. 4 based on G. Gershwin’s “Embraceable You” 외 1곡을 피아노 솔로로 연주했고, 최경은 동문은 Jacques Offenbach작곡 “Les larmes Jacqueline, Op. 76, No. 2를 첼로 솔로로 연주, 피아노 반주는 제갈소망 동문이 맡았다. 최혜성 동문은 Albert Franz Doppler 작곡 “Fantasie Pastorale Hongroise, Op. 26”을 플루트 솔로로 연주했으며 피아노 반주는 안소연 동문이었다. 박소영 동문은 김동진 작곡 “신아리랑” 외 2곡을 소프라노 솔로로 연주했는데 피아노 반주는 안소연 동문이었다.

마지막 순서는 Piano Quintet이었는데, Ernst von Dohnanyi 작곡 “Piano Quintet No. 1 in C Minor, Op. 1”을 조가현, 김여경, 유혜리, 최경은, 제갈소망 동문 등이 연주했다. 소프라노 박소영 동문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서울 잠실올림픽에서 함께 공연을 했고 LA오페라의 공연 ‘마술 피라’ 중 밤의 여왕 역, ‘후궁으로 부터의 도주’ 중 볼론데 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플루티스트 최혜성 동문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플루트협회 쿤쿠르 영아티스트 부문 우승을 차지했으며 샌안토니오 심포니플루트 수석을 역임했다. 현재 캘텍에서 플루트 및 실내악 강사와 캘텍플루트코어 디렉터 및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안소연 동문은 한국 모차르트 오케스트라 쿤쿠르에서 입성했으며 USC 키보드앙상블어워드를 수상했다. 현재 USC음대(Thornton School of Music) 박사과정 중이다. 피아니스트 제갈소망 동문은 동아음악 쿤쿠르, 워싱턴 국제 피아노 쿤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윤이상 국제음악제 초청 연주, J.F케네디센터,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한 바 있다.

이같이 LA 등 미국과 한국, 유럽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이 대거 출연하였는데, 그 열띤 연주는 지퍼홀을 가득 메운 450여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특히 마지막 곡인 5중주는 3번이나 앵콜박수를 받는 등, 그 열기는 음악회장을 뜨겁게 하였다. [기사제공: 홍선례 편집위원]

이렇게 인공지능은 음악세계에서 연주, 악기, 작곡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이 외에도 음악교육 및 음악가들에게 여러 면으로 도움을 주는 보조역할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 영향으로 그동안 음악세계에서 경제적(악기를 배우는데 있어서의 값비싼 레슨비) 시간적(연습하는데 소비되는 많은 시간)으로 문제가 되었던 점들이 개선되며 대중들도 음악을 쉽게 배우고 연주하고 작곡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이외에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소니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시오. <편집부>



뉴잉글랜드 동창회 가을 야유회 개최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지난 9월 16일 온화한 날씨 속에 뉴튼Auburn Park 에서 가을야유회를 가졌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자기 소개와 아울러 여름 동안 가졌던 여행 이야기, 평소 즐겼던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본인 사업소개도 하는 등 서로 회포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UMass-Dartmouth 오세차 교수(문리 71)는 본인이 즐겨보는 무술영화를 소개해 동문들의 폭소를 자아냈고, 정혜숙 동문(간호 66)은 주로 부군(윤희경, 문리 62)과 함께

왔었는데 이날은 혼자 참석하였다. 특히 1년간 비지팅으로 체류하는 모교 약학대학 박성혁(88) 교수 및 김정선(문리 66) 동문 등 처음으로 동창회에 참석한 몇몇 새로운 동문들이 있어서 한층 고무된 시간이었다. 이날 로드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고일석 동문 부부 및 이의인 동문 부부, 정태영/이영인 동문 부부는 맛있는 영양잡곡밥을, 박영철/정선주 동문 부부는 집에서 재배한 상싱한 깻잎을 준비해 가져와 동창회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였고 배지선 동문(수의 '94)은 무거운 folding table 을 두개나 집

에서 가져와 등록 받는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김제성 동문(공 '87)은 언제나와 같이 그릴을 담당해 주어 맛있는 불고기를 즉석에서 즐길 수 있었고 이상운 동문(수의 '87)의 재치있는 사회로 동문들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상운 동문은 쪽지에 간단히 각자의 이름과 간단한 본인 소개를 쓰도록 하고 돌아가 하나씩 뽑아서 자기소개를 마친 동문이 자기가 뽑은 다음 사람을 발표하도록 하였는데, 간단한 힌트로 뽑힌 쪽지에 적힌 다음 동문을 미리 알아맞추는 게임도

함께 진행이 되어 게임과 자기소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석이조의 진행이었다. 이날 상품은 모두 페이퍼 타올로 통일되어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박영철 회장(64 농)은 "뉴잉글랜드의 맛있는 가을산을 동문 및 가족들과 함께 즐기 위하여 10월 28일 (토) Blue Hill 을 등산 합니다. 등산을 하면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고, 많은 stress 를 줄이고 병들을 예방하고 치유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 뵈겠습니다." 고 가을등산 모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10월 28일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산: Blue Hills - Buck Hill
- ▶ 만나는 장소: Houghton's Pond Parking Lot, Visitor Center 게시판 앞. (840 Hillside St., Milton, MA 02186) I-93 Take exit 3 (Houghton's Pond, Ponkapoag Trail exit), Follow the signs
- ▶ 일시: 2017. 10. 28 토요일, 9:00 AM 모임, 9:15 AM 출발
- ▶ 대상: 동문 및 가족
- ▶ Fee: 무료
- ▶ 지참: 점심, 물 (동창회 제공: Snack)
- ▶ 기타: 2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가벼운 산행, 등산화, 장갑, 모자, Backpack, Hiking poles
- ▶ 문의: 617-710-1948/ 781-674-2498 이메일 snuaane@gmail.com [기사제공: 이영인 편집위원]

남가주 음악대학 동창회 정기연주회 개최



오는 12월 2일 (토) 오후 7시, The Colburn School Herbert Zipper Concert Hall 에서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문 합창단 정기공연이 개최된다. 방정자(간호대 61) 동문을 단장으로 하는 이 합창단의 단원은 40여명이며 지휘에는 장진영(음대 88), 피아노 반주에는 김연정(음대 86)동문이 수고한다. 이날의 공연을 위해 단원들은 몇 개월 전부터 나성영학교 소망관에서 맹렬히 연습 중이다. 연주 곡목은 "Five Hebrew Love Songs", "동무생각", "눈", "추심"과 한국민요, 그리고 "Silver Bells", "Deck the

Hall",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오 거룩한 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등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한다. 찬조 출연에는 Violin박민정, 해금 박영안, 대금 박종대, 장구 장경선, 유희자 동문들과 유희자국악 무용연구소 단원들도 출연한다. 또한 Conga: Samuel Mazur and Jis dream handbell choir가 특별 출연한다.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할 이 합창단 연주회에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 [기사제공: 홍선례 편집위원]

남가주 미술대학 동창회

제15회 동문 전시회 개최



제15회 서울 미대 남가주 동문전이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PARKVIEW Gallery(2410 James M. Wood Blvd.)에서 열렸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남가주 동문회(회장 한귀희, 미대 68)가 매년 개최하는 그룹전이며 올해 15번째 전시회이다. 한국과 미국, 유럽 등지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문들이 다양한 기법과 재료들을 사용한 최신작 42점을 선보이며, 매년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꾸준히 동문들간의 친목과 교류도 이어가고 있다. 참여한 동문들은, 김순진(미대 59), 성수환(미대 59), 신동인(미대 60), 손남수(미대 60), 김화자(미대 60), 심영자(미대 61), 김구자(미대 61), 김경옥(미대 61), 오성주(미대 61), 신혜자(미대 61), 현혜명(미대 61), 신정연(미대 61), 홍선애(미대 62), 윤

태자(미대 62), 김영희(미대 65), 박영국(미대 65), 김윤진(미대 61), 서동현(미대 67), 한귀희(미대 68), 백혜란(미대 70), 한석란(미대 71), 강영일(미대 72), 박다애(미대 73), 김경애(미대 83), 박영구(미대 84) 등 25명이다. 한귀희 미대 회장은 남가주 동문들과 그림을 사랑하는 한인들을 초청하니 한 해 동안 열심히 작업한 작품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프닝 리셉션이 10월 14일 오후 3시에 있었는데, 성주경(상대 68) 남가주 총동창회장, 김병연(공대 68) 상임이사, 박혜옥(간호대 69) 상임이사, 정인환 (법대 54) 법대회장, 한효동(공대 58) 공대회장 등 여러 임원들과 동문들, 그리고 친지들을 포함해 120여명의 내빈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기사제공: 홍선례 편집위원]

뉴욕지역 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개최



챔피언: 김문경 (약대 60)



행운상 1등: 광승용 (의대 65)



10월 11일 수요일 12시, 뉴욕지역 동창회 추계 골프 대회가 뉴저지 Sunset Valley Golf Course에서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명의 진행위원 만 제외한 74명이 샷건 방식으로 골프 티업을 시작했다. 이대영 회장을 비롯한 임원, 친지 게스트가 십여 명이 넘었다. 애초의 우려를 뛰어넘는 많은 분의 따뜻한 성원으로 이루어진, 낙엽이 지기 시작한 초원에서 가을 동창회 행사 아름다운 모임이었다. 그 전날까지

비가 내린 날씨였지만, 이날은 날씨도 좋아 순조로이 라운딩할 수 있었다.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감소하고, 여행 중인 동문이나 몸이 편치 않은 동문이 다수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여건임에도 참가해주는 동문님들의 성의가 이루어 낸 성과임에 틀림 없다. 참석하신 모든 분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를 드린다. 후원하신 분을 소개하면 이준행 골든 클럽 명회 회장사의 아름다운 모임이었다. 그 전날까지

장 500볼, 김문경 동문 300볼, 객선섭 동문 다이아 장식 금반지, 이진구 동문 골프공 30 다츠, 신웅남 동문 골프가방(1개)을 기부하였다. 후원금과 기부 선물을 보내 주셔서 이번 대회에 상품과 선물이 풍부하여 참가하신 분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었고 따뜻한 성원에 훈훈한 동문 모임을 이루어 낼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대영 회장의 노력과 열정으로 전년도 참석인원의 3배 이상이 참석하게 되었다. 챔피언, 근접상, 장타상, 행운상,

갤러리 채점 골프 성적 1등부터 10등상까지 많은 상(다이아몬드가 들어간 금반지, 골프 가방, 트로피, 금일봉 등)과 등록한 전원에게 동문 로고가 새겨진 골프타월, 골프공, 다양한 간식 등이 제공되었다. 점심은 골프장에서 햄버거, 치킨버거, 핫도그 등이 제공되었다. 라운딩이 끝난 후, 뷔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시상식이 김광수 골프 위원장의 사회로 열렸다. 레플 추천을 하여 행운상을 여러 동문에게 주어 기쁨이 가득한 저녁이었다. 멋진 가을 속에서 우리의 꿈을 시원한 하늘에 날리며 보낸 즐거운 하루였다. [기사제공: 강교숙 사무총장]

북가주지역 동창회

추석 산행 및 Picnic



북가주 총동창회의 등산 모임인 Zinfandel Hiking Club (클럽 회장 심동섭)은 지난 10월 7일 토요일 제 206차 정기 산행 후 Stevens Creek County Park, Lakeshore Picnic Area 에서 추석 야유회를 가졌다. 드넓은 가을 하늘아래 시원한 호숫가에서 40여명의 회원 모두가 특기의 솜씨를 뽐내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푸짐한 송편 음식을 즐기며 반가운 얼굴과 환한 웃음으로 서로 도우고 격려하며 덕담하는 자리였다. 우리 전통의 한가위, 풍성한 가을 수확을 기뻐하며 산행과 야유회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회원들과 가족 여러분, organize 해주신 전해경와 많은 동문들이 서로 감사드리고 이제 다가오는 연말과 새해도 평화와 번영 아래 맞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헤어졌다. 민병곤 (이사장) 드림



북가주지역 동창회

제3차 북가주 오픈 골프 토너먼트



북가주 총동창회 (이사장 민병곤, 회장 임희례) 주최, 2017년 제3차 북가주 오픈 골프 토너먼트가 9월 23일 (토요일)에 Mountain View의 Shoreline Golf Links에서 골퍼와 운영봉사자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막 도착한 가을의 청명한 하늘 아래 동문과 친지들 또 지역사회 지인들이 화기에매한 웃음과 운동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뜻 깊은 하루였다. 골프 후, Shoreline Michael's Restaurant 에서 40년 선후배가 지혜와 정을 나누며 저녁식사를 겸한 시상식이 있었다.

많은 봉사자, 후원자, 골퍼들께 감사드리고 금년 동창회 마지막 큰 행사가 될 총회경 연말 파티가 12월 9일 (토)에 팔로알토의 웨스틴 호텔에서 있을 예정이니

모든 동문들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골프 대회장 강정수
- 준비위원 김기덕, 객준경
- 메달리스트 (남) 박봉명, (여) 황영순
- 참파인 김희식
- 1등 (남) 홍승일 (여) 이영옥
- 2등 (남) 박찬호 (여) Mrs.박찬호
- 3등 (남) 이은홍 (여) 안현숙
- 장타 (남) 이성형, (여) 가미숙
- 근접 김진구, 민병곤
- 모범상 한만섭
- 특별상 윤기철

(글: 이사장 민병곤)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ree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news@snuuaa.org

워싱턴 주 동창회

10월 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14일 세미나는 보잉 상업용 비행기 사업부에서 Mechanical Engineer로 오랫동안 (28년간) 일하시고, 2014년부터 게이트 재단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에서 Program Officer로 근무하고 있는 Mr. Sun Kim (김순길) 강사가 빌 게이트 재단에서 주도하는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program, 즉 글로벌 식수 위생과 관련된 최신 변형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Mr. Bill Gates 회장은 제3세계의 식수 오염으로 인한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장실 혁명'이란 목표를 가지고, 독일 정부와 손잡고 제3세계 화장실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배설물을 씻어 내릴 필요가 없는 건조 방식의 '물 없는(waterless) 위생 화장실'과 배설물을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에너지 생산형 화장실' 개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게이트 재단의 글로벌 식수 위생과 관련된 최신 변형기

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 ▶ 11월 - 노형민 (UW 박사과정):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는가? - 기후변화를 맞이하는 식물
- ▶ 11월 (강의 및 종강 파티) - TBD (미정)
- ▶ 12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General Meeting and Year-End Party)

2018세미나 발표예정자:

- ▶ 1월 - 최종현 박사 (Allen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연구개발 현황과 응용분야 ?
- ▶ TBD - TBD: 무인 비행체 드론 (Drone)의 연구개발 현황과 응용분야 ?
- ▶ TBD - 우장희 박사 (UW/FHCRC): 혈액암 (Leukemia) 연구 현황 ?

[기사제공: 김재훈]

조지아 동창회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



조지아지부는 지난 10월 15일 (일요일), Atlanta 골프 명문코스 중에 하나인 Bear's Best, Atlanta에서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주지영 (허지영, 문리대 66)회장이 지난 2월 총회에서 발표한 재임기간 중 실시할 사업 계획들 중 하나로, 동창회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또는 이웃에 의미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의 행사였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샷전 방식으로 시작된 이번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는 플래티늄, 골드, 실버 포함 16개의 홀스폰서, 39명의 플레이어, 여러 봉사자, 그리고 기타 후원자들의 적극적이고, 따뜻한 도움으로 기대 이상의 성공적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지영 회장 취임과 함께 구성된 골프위원회, 이주영(상대 69)위원장의 치밀한 기획과 헌신적 노력이 그 결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성과를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관리하기 위하여, 이종석(의대 54), 김수일

(의대 59), 주종광(약대 60), 공영식(사대 79)등문들로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장학금 지급대상(동문들의 직계후손 고등학생, 대학생, 또는 서울대 졸업 유학생 등)과 방법 등은 장학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저녁식사 시간에는 행사에 대한 경과보고, 시상식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윤영돈(법대 59)동문, 강부웅(문리대 63)동문이 남자부문 1, 2등, 김연화(간호대 65)동문, 임성희(임수암, 공대 62, 동문의 아내)씨가 여자부문 1, 2등, 강창석(의대 73)동문, 최병희(간호대 65)동문, 김화생(대학원)동문, 임명섭(임한웅, 공대 60, 동문의 아내)씨가 근접상을 받는 영광을 갖기도 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 속에서 그 결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성과를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관리하기 위하여, 이종석(의대 54), 김수일

조지아 동창회 애틀랜타 필 '코리언 뮤직 페스티벌' 공연 대 성료

최자현(06) 피아노 협연, 박민(기악과 80) 지휘



애틀랜타 필하모니오케스트라 501(c)3 (지휘자 박민)가 '2017 애틀랜타 대한민국 음악 대축제'를 지난 7일 오후 8시 노크로스 소재 애틀랜타 한인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정인숙씨의 피아노 협주곡 '아리랑 콘체를탄테'로 미주 초연으로 시작된 이번 음악회는 애틀랜타 필하모닉의 쇼스타코비치 2번과 봉선화의 만남을 박민 씨의 편곡으로 연주되었다. 소프라노 사라 박 씨는 '신 아리랑'을, 서울대 피아노과(06학번) 출신인 최자현씨는 아리랑 랩소디를 협연하여 꽃다발의 세례를 받았다.

특히 이날, 백 파이프 연주자 브래드 비튼은 '아리랑'멜로디를 객석에서 걸어나오며 열정적으로 연주해 수많은 관객들

의 기립박수를 받았으며 애틀랜타 필은 '아리랑 환상곡'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87년 서울대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하고 도미 후 꾸준한 활동을 해온 박민 지휘자는 "인종과 피부색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이 땅에서 음악으로 평화와 화합을 이루기 원했다"고 전했다.

공연후, 애틀랜타 필이 선정한 차세대 꿈나무 장학금은 시카고에 사는 바이올린강인 학생과, 필리핀 소년소녀합창단 창단기금과 그리고 서울대학교 조지아지부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했다. 이번 공연은 애틀랜타 한인회, 서울대학교 조지아지부, 더 주메일리 재단에서 후원했다. 애틀랜타 필은 오는 2018년에 열리는 평창 올림픽 성공기원 음악회를 Atlanta Infinite Energy Center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후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웹사이트 www.atlantaphil.org에서 후원 (Donate) 하시면 된다. 문의 전화 678-978-2220

[기사제공: 박민(음대 80)]

플로리다 동창회

제2차 골프 대회



제2회 Florida 지부 주관 Golf 모임이 10월 14일 토요일 2시 Fort Lauderdale Inverrary Golf Course 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동문님이 관심을 보여주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많은 동문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가을 날씨와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울타리에서 공부한 선후배의 친목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동문은 유영래 (농대 65), 계동휘(치대 66), 조동진(공대 69), 정치영(법대 76), 오화석(법

박윤수 동문 첫 시집 출간

발간 기념회 11월 9일 실비치 리저월드 Clubhous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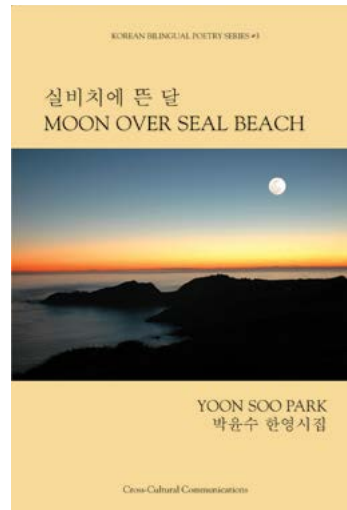
박윤수 박사 첫 시집 발간 기념회가 2017년 11월 9일 실비치 리저월드 Clubhouse 2에서 오후 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시집 제목은 "실 비치에 뜬 달"이다.

박윤수 박사는 1929년 경상북도 예천에서 출생, 모교 문리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미국에 유학하여 University of Alberta 대학에서 물리학 석사, University of Cincinnati 대학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북대학교 명예 이학박사이며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초빙교수와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Johns Hopkins 대학교 초빙교수 역임했다. 「해외문학」 신인문학상 시부문에 당선되어 데뷔. 그는 「해외문인협회」(미국)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인의 말

저는 40여 년의 과학 교육, 연구와 행정에 얽힌 생활을 겪으면서도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자연과 인류의 진리를 다른 방법으로 또는 다른 시각에서 추구해보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생을 과학적으로 분석 해명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뜻과 목표를 깊이 이해하고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마음껏 가져 봤으면 했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서운한 감정에 사로잡히면서도 내가 항상 희망하던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은퇴생활의 시작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독서를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다는 희망에 은퇴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은퇴를 하고 남쪽 캘리포니아 주 실비치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은퇴 마을 리저월드에 이사 와서 문예반 모임을 발견하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88년이만 세월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다가온 여생을



바라보면서 값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러질 때까지는 내 인생이 그치지 않습니다. Albert Pine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것들은 나와 같이 죽어 버리지만 남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한 일들은 영원히 남고 불멸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생의 철학입니다.

86세 때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상도 잘 안나오고 실망도 많이 했지만 "실망하지 마. 약해 지지마" 라고 하는 일본의 시바다 도요 할머니의 시를 읽고 분발했습니다. 멋도 모르고 쓰는 시가 줄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시 강의를 듣고 시를 이렇게 써야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시 쓰기가 더 힘들어지고 써놓은 시가 우습 기도했습니다. 시를 쓰는 동안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고 "약해 지지마"라는 다짐을 번번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평생 과학과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시의 세계에 들어오니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고 마음의 평화로움을 얻고 어지러운 세상이 모두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애지고 싫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용량이 생깁니다. 괴로움과 슬픔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를 쓰는 동안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생의 마지막 길을 달리면서 소집한 시들이지만 그동안 쓴 것들을 모아 살아온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였고 희망과 기쁨에 가득 찼고 값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유산으로 가족과 친지에 남기고 싶어 용기를 내고 이렇게 시집을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번달을 바라고 있습니다.

동창회 행사 소식 및
동문 동정 소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잉글랜드

필하모니아 보스턴의 가을음악회 'Harmony of Autumn'



보스턴 한인 사회의 자랑인 필하모니아 보스턴(박진욱 음악감독, 장수인 단장)의 '가을의 서정' 음악회가 대성황리에 열려온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것들은 나와 같이 죽어 버리지만 남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한 일들은 영원히 남고 불멸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생의 철학입니다.

86세 때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상도 잘 안나오고 실망도 많이 했지만 "실망하지 마. 약해 지지마" 라고 하는 일본의 시바다 도요 할머니의 시를 읽고 분발했습니다. 멋도 모르고 쓰는 시가 줄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시 강의를 듣고 시를 이렇게 써야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시 쓰기가 더 힘들어지고 써놓은 시가 우습 기도했습니다. 시를 쓰는 동안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고 "약해 지지마"라는 다짐을 번번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미사변

80세 노인과 24세 소녀의 사상 로맨스



[태미사변泰未思辯]은 태상泰相과 미래未來의 사상논쟁이다. 재미 작가 이태상과 서울대 학생 김미래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주고받은 사상논쟁을 기록한 책이다. 이태상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와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타임스 기사를 역임하고 뉴욕주법원 법정통역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80세의 노장이다. 김미래 학생은 24세 청춘으로 서울대 의류학과에 재학 중이면서 1인기업 '에그코어 Eggcore'를 운영하는 의상디자이너이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다른 공간에 살고 있으며, 56년의 나이 차이가 나는 데

학 선후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둘은 삶과 인생과 우주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이메일로 토론을 벌였다. 태상의 편지는 단세포 아메바 같은 생명의 씨앗인 남성이 신비로운 우주의 자궁 같은 여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미래의 편지는 만물의 고향인 여성이 메마르고 거친 황무지 같은 남성들에게 보내는 단비 같은 답장이다. 400여 년 전 퇴계와 고봉이 26년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주고받은 사상논쟁에 비견될 만한 큰 사건의 태미사변泰未思辯이다.



최은관 (상대 64)

<역사 이야기>

수메르와 한국의 공통점

단군신화에는 하늘나라 임금 환인의 아들 환웅이 3천의 무리를 이끌고 太白山 밑으로 내려와서 이를 神市라 하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렸다고 한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 왔다는 말은 훌륭한 조상을 기리는 의미에서 과장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글자 그대로 환웅이 내려온 것을 사실로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환웅이라는 조상과 같이 온 3천의 무리가 하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흘러들어와서 고향을 숭상하는 부족과 합했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환웅 및 3천의 무리를 환웅 부족이라고 부른다면, 이들은 곧 부족이나 호랑이 부족과 언어가 달랐을 것이다. 명사나 동사는 필요에 따라 쉽게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한 문법은 세월이 지나도 잘 바뀌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환웅 부족이 수메르에서 왔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메르어와 한국어의 13가지 문법 공통점을 살펴 보려고 한다. 물론 학자들이 세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 여기서는 학계에서 눈여겨보지 않은 문법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어순이 같다

수메르어는 우리말과 같이 문장의 구조가 주어 + 목적어 + 동사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Eriduga. e gua bin.du

에리둡에(-a), 집(e)을, 강변(gu)에(-a), (bi=생물) 그가(n =he/she) 지었다(du) 그러나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어도 토씨의 역할 때문에 여전히 뜻이 통한다.

2. 수메르어와 한국어 및 일본어에 유사음 동의어가 많다.

비슷한 낱말은 스무 개 정도인데, 대부분이 명사이고 동사는 드물다. 예를 들면 gu는 먹는다는 뜻이고, 일본어의 く(구우)와 상통한다. Etutu는 어두움이요, dingir 는 신/단군이고, -a는 장소를 가리키는 “-에”이다. Ama는 엄마라는 뜻이지만, 다른 나라말도 엄마와 같은 원시 명칭은 서로 비슷할 수 있어서, 설득력이 약하다.

3. 장소를 가리키는 토씨 (-a)

우리말의 ‘-에’와 같다. 예를 들면, An

한국인은 빌려온 중국어 명사에 “-하다”를 붙여 동사로 만든다. 수메르인도 명사에 조동사 -du(to do, 하다)를 붙여서 동사를 만든다. 예를 들면, inim(word)-du는 글자 그대로 ‘말을 하다,’ 즉 speak(말하다)라는 동사가 된다.

8. 관사(a, an, the)를 피한다.

수메르어나 한국어에는 “하나”나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그” 따위의 관사를 잘 쓰지 않는다.

9. 부정사 (-nu, -na)

수메르어에서는 무엇을 부정할 때, nu-를 아니아, 았아라는 뜻으로 쓰며, “na”는 무엇을 하지말라는 뜻으로 쓰인다. 우리말의 “하지 마.” 일본어의 금지형 “-나”도 비슷하다. 하나스 ㅁ 하나스나 (말하지 마!), 가에루 ㅁ 가에루나 (돌아오지 마!)



다”(very precious)는 뜻이다. 쉐(šen)은 깨끗한 (clean)이고, 쉐넌(šen- šen)은 “아주 깨끗하다”(very clean)는 뜻이 된다. 또한 Digir-gal-gal은 ‘크나큰 신’이 된다. 중국어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있으나 우리와 표현이 다르다. “정정당당하고” “명명백백하다”고 말하지만, “정당정당”이라거나 “명백명백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짝반짝”한다고 말하고 “반반짝짝”이라고 하지 않는다.

5. 수메르어 동사의 기본형은 “-우”로 끝난다.

Manu = count Qamu = burn 일본어 동사의 기본형도 대체로 “-우”로 끝난다. 그러나 원시 사회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명령형이다.

6. 수메르어 동사의 명령형은 “-아”로 끝난다.

Petu (open): petal! (open for me) Kanpa (remember!) Ziga (Rise!) 우리말의 간걸 명령형도 “-아” 또는 “-어”로 끝난다. 예: 먹어! 잡아!

7. 명사의 동사화

형 “-나”가 쓰이는데, 아마도 “-하지 않아?” 따위로 질문한 듯하다. 우리말도 흔히 부정형으로 질문한다. 이것 맞 있지 않아? 아직도 우리는 그러한 질문 어미를 유지하는데, “않아?” “않느냐?” “않는가?” 따위로, 니은 소리가 남아 있다.

13. 관계 대명사의 부재

수메르어와 한국어는 관계 대명사가 없다. 문장을 자르고, Who 대신에 루(man, 그 사람), which 대신에 닝(thing, 그것)을 쓴다.

다음 글에는 수메르와 한국의 공통된 풍습을 살펴본다.

수메르인과 한국인의 공통된 관습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거느리고 온 3천 명을 환웅 부족이라고 부른다면, 과연 이 환웅 부족이 수메르에서 왔다는 물증이 있을까? 수메르어와 한국어 사이에 공통점이 많은 것은 우리 선조들의 일부가 수메르에서 왔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더 확실한 물증을 찾기 위하여 먼저 우르의 군기를 통해서 수메르인과 한국인의 공통된 풍습을 살펴본다. 우르의 군기(Standard of Ur)는 기원전 2600년 경에 만들어진, 일종의 자개상자인데, 옆면은 사다리꼴로 되어 있고 앞면에는 다음과 같이 전쟁 장면과 평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첫째 사진) 우르의 군기(軍旗)의 전쟁 장면

전쟁 장면은 수메르 군대가 적들(아마도 아카드 군대)을 격파한 것을 그린다. 수메르인이전에는 말이 끄는 戰車에 관한 기록이 없다. 옛 윗줄에는 수메르 병사들이 청동도끼를 들고 있다. 가운데 줄에 있는 병사들은 청동 투구를 쓰고 청동 단추가 달린 갑옷을 입었다. 전쟁 장면의 왼쪽에는, 나뭇잎 치마를 두르고, (아마도) 청동검을 차고, 청동 단추가 달린 갑옷을 걸친 수메르 군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갑옷이 없이 각이 난 치마를 입은 적, 원시적인 군대가 있다. (둘째 사진) 우르 군기의 평화 장면이 우르 군기에 그려진 임금은 아마도 우르 파블식(기원전 2550년 사망)일 것이다. 평화 장면의 셋째 줄에는 정복당한 뒤에, 각이 난 치마를 입은 (아카드) 병사들이 짐을 나르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병사는 어깨에 지게를 지고 있고, 마지막 줄 바른 쪽의 두 수메르인의 지시를 받고 있다.

왼쪽 옆면의 사다리꼴은 잘 보존되어 있지 않은데, 3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상면에는 생명나무와 그 꽃 · 이파리가 자개와 청금석으로 새겨져 있다. 중면과 하면에는 야생 동물과 염소가 그려져 있다. 바른쪽 옆면의 사다리꼴도 3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면에는 생명나무의 덩굴과 지키는 동물, 중면에는 수메르인이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그림이 새겨져 있고, 하면에는 네 마리의 동물이 가운데 생명나무를 지키다.

수메르인과 한국인의 다섯 가지 공통된 풍습을 살펴본다.

(1) 나전칠기

앞에서 본 자개상자의 바탕은 나무이고 반짝이는 조개 껍질, 청금석, 붉은 화강암조각으로 장식되었고, 검은 바탕 색은 역청(아스팔트)였다고 한다. 역청은 높은 온도에서 안정되지 않으므로 중동에서 아스팔트를 장식품에 사용했다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학자들이 이것이 옳나무 액이 있는지 그 성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칠화칠기(낙랑칠기)는 중국에서 들여왔다. 1988년에 경남 하호리 고분에서 기원전 1세기(청동기 시대)의 칠기 유물이 발견되었다. 서주 시대(기원전 1046-771년)에 중국에서 나전기술이 발달되었으나, 수메르는 1500년이 앞서니, 고조선 시대에 수메르에서 우리나라에 자개 기술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물증이



없다.

(2) 지게의 사용

지게는 우리 선조가 고안하고 삼국 시대부터 사용된, 한국 고유의 물건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중호: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들것, 지게) 우르 군기의 평화 장면 셋째 줄에는 두 남자가 등 뒤에 자루를 지고 있고, 또한 두 남자가 지게를 지고 있다. 이것을 보면, 한국인보다 수메르인이 먼저 지게를 쓰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수메르인과 조선 사람이 따로 지게를 발명했을 수도 있지만, 수메르인이 지게를 먼저 사용하고, 그 풍습이 조선에 전해졌다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지게 모양을 살펴 보면, 두 개의 반듯한 나무 막대기를 H-자 형으로, 세 곳, 위 · 아래 · 중간에 연결해서 만들었고, 가운데는 짐을 묶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게 틀을 만들려고 땅지는 물론 톱을 사용했을 것이다.

(3) 청동 단추와 거울

청동 병기는 주조 과정을 거친 뒤에, 갈고 닦아야 하는, 노동 집약적인 상품이다. 물물교환하던 시절에 구리는 은 값의 1/10이었다고 한다. 구리 값이 비싸니, 무거운 청동 갑옷이나 방패보다 청동 단추를 단 갑옷이 경제적이고 무겁지 않았을 것이다. 거꾸집을 이용해서

단추를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그런 갑옷은 병사의 몸을 부분적으로 보호한다. 청동 단추가 먼저 수메르에서 쓰였고 나중에 고조선 지역에서도 쓰였다는 것은 수메르의 청동 단추가 고조선의 청동 단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청동 단추는 기원전 2천년 경부터 키르기스탄 유목민이 사용한 청동 거울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적어도 초기의 청동 거울은 단추보다 별로 크지 않았다. 청동이 당시에 무척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4) 청동검

환웅이 가져온 천부인은 청동검 · 청동 거울 · 청동 방울이었다. 신석기 시대의 부족에게 환웅이 놀라운 청동기를 가져왔으니, 이들이 환웅을 하늘로부터 온 사람으로 취급한 것이 당연하다. 수메르 병사가 청동 단추를 단 갑옷을 걸쳤으니, 그들이 사용한 검도 또한 청동

벽이 다시 열리려는가

-2017년 가을 서울에서



서윤석 (의대 62)

싹뿔줄 타고 반딧불 몇개가 어두운 골목길을 헤매는 밤 한강의 물결이 벽에 부딪쳐 그 흐름이 멈추어가는 밤 서울의 유령들이 강변에 장승처럼 섰네

우리가 어른이 못되어 살 길을 잃어가는 이 도시에 우리가 다시 어른이 되면 이 스산한 밤이 떠나가고 아침해가 다시 들 수 있으려나

우리가 어른이 못되어 유령들이 돌아온 이 도시에 우리의 기도가 벽을 흔들고 회개의 눈물이 벽을 무너뜨리면 목메인 강이 다시 열릴 수 있으려나

우리가 어른이 다시 되어 피를 나눈 생명들을 아끼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서로 사랑하면...

한국 현대 시인협회 회원
국제 PEN 한국본부 회원

계산법을 이어받았음을 가리킨다. 로마인은 7월에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울 수 있다.

(a) 기원전 2340년에 수메르인들이 차츰차츰 밀려 들어온 셈족의 수에 눌러 나라를 잃었고, 또한 1900년 경에 다시 세운 수메르 3왕조도 전복되었다. 따라서, 상심한 수메르인들이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다. 그러니 환웅 부족이 고조선의 기초를 세운 것은 기원전 2340년이나 1900년 경

이전이었을 것이다.
(b) 수메르어와 한국어 문법의 유사성은 고향을 떠난 수메르인의 일파가 고조선에 가서 정착했음을 가리킨다.

(c) 수메르인과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지게, 자개 상자, 청동검, 청동 단추의 사용, 여인들이 머리에 짐을 이고 다니는 풍습은 고조선인이 환웅 부족에게서 문화를 전수받은 것을 가리킨다.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캠페인

2017년 구독료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일연이 쓴 단군신화에 웅녀가三七日만에 여자가 되었다는 말은 중국이 아니라, 한민족이 수메르에서 칠일일주



김용구 (공대 66)

Haute Couture (High Fashion), Joseph-Marie Jacquard and Napoleon Bonaparte

What is Haute Couture?

Haute Couture (high dressmaking or fashion) is high-end fashion that is constructed by the most experienced and capable sewers, made from high-quality, expensive, often unusual fabric and sewn with extreme attention to detail, tailored specifically for the wearer's measurements and body stance. Considering the amount of time, money, and skill allotted to each completed piece, haute couture garments are also described as having no price tag and budget being irrelevant.

Haute Couture may be traced back 17th century; however, **Rose Bertin** (1747-1813), the French fashion designer to Queen Marie Antoinette (queen of King Louis XVI), can be credited for bringing fashion and haute couture to French culture. French leadership in European fashion continued into the 18th century when influence was sourced from art, architecture, music, and fashions of the French court at Versailles were imitated across Europe. **Bertin** was partly blamed for arguably cause of the **French Revolution** due to her promoting the unfortunate the queen's extravagance. After the Revolution, Bertin returned to France from London and served Josephine de Beauharnais briefly. Wikipedia states that "haute couture is a protected name in modern France that may not be used except by firms that meet certain well-defined standards". However, the term is also used commonly to describe all **high-fashion custom-fitted clothing** whether it is produced in Paris or in other fashion capitals: London, Milan, or New York City. Thus the garments you buy off-the-shelf in name-brands stores such as Dior, Channel, Hermes, and others in international airports and tourist destinations are not qualified as an haute couture.

High Fashion requires unusual woven fabrics in terms of color, pattern and texture. During Bertin's time the

extraordinary fabrics for Haute Couture were woven labor intensively by hand weavers. Joseph-Marie Jacquard's inventive spirit led to the development of an improved loom that not only revolutionized the weaving process in the 19th century, but its technical implications had a major impact on computer technology in the 20th century.

What was major contribution of Joseph-Marie Jacquard?

Joseph-Marie Jacquard was an innovator of the programmable attachment to the weaving loom, which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not only in the textile industry, but also in development of other programmable machines, such as computers, for example the Analytical Engine of Charles Babbage. **Figure 1** shows the most famous image in the early history of computing. This portrait of Jacquard was woven with silk filaments on a Jacquard loom and required 24,000 punched cards to create (1839). It was only produced to order. Charles Babbage owned one of these portraits. It inspired him in using perforated cards in his analytical engine. It is in the collection of the Science Museum in London, England. (https://en.wikipedia.org/wiki/Jacquard_loom). Some of readers used IBM main frame computers may remember the punch cards to enter data and a program. This concept was directly derived from the jacquard machine's punched cards for entering the fabric design data and weaving loom control. Advances in automated fabric manufacturing technology broadened the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of textiles and clothing that previously were available mostly for the privileged classes. In 1801, Joseph-Marie Jacquard perfected a loom for weaving textiles of intricate designs by raising or lowering the individual warp threads. The type of textile with raised patterns still bears the inventor's name, jacquard fabrics. The fabric type "jacquard" is used as a common no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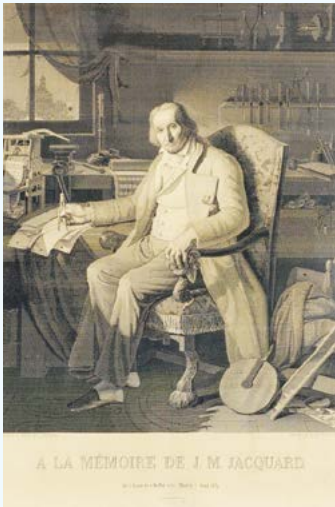


Figure 1. The portrait of Jacquard, woven on a Jacquard loom (see details in text).

How did Jacquard Automate to Weave Elegant Haute Couture Fabrics?

The author participated in the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osite Structures, of which venue was Conservatoire National des Arts et Métiers (CNAM) 4-7 September 2017. According to Wikipedia, CNAM (National Conservatory of Arts and Crafts) is a doctoral degree-granting higher education establishment (or grand établissement) and Grande école in engineering, operated by the French government, dedicated to providing education and conducting research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and industry. It has a large museum of inventions accessible to the public. During the conference I visited the CNAM museum (Figure 2).



Figure 2. The Conservatoire national des arts et métiers (CNAM; National Conservatory of Arts and Crafts), and the Museum of Arts and Crafts.

The museum was established 1794 as a repository for the preservation of scientific instruments and inventions. Among its collection are an original version of the **Foucault pendulum**, and the original model of the **Statue of Liberty by Auguste Bartholdi (Figure 2)**. The museum has three floors and presents seven different collections: Scientific Instruments, Materials (2nd floor); Energy, Mechanics, Construction, Communication (1st floor); Transport (ground floor). I found the programmable Vaucanson's loom (**Figure 3**) on the 2nd floor, from which Jacquard improved the reliability to obtain a patent on 1804. Vaucanson's control head consists of perforated paper tape on a drum as seen in the **Figure 3**.



Figure 3. The Vaucanson's loom exhibited in second floor of the Museum of Arts and Crafts at C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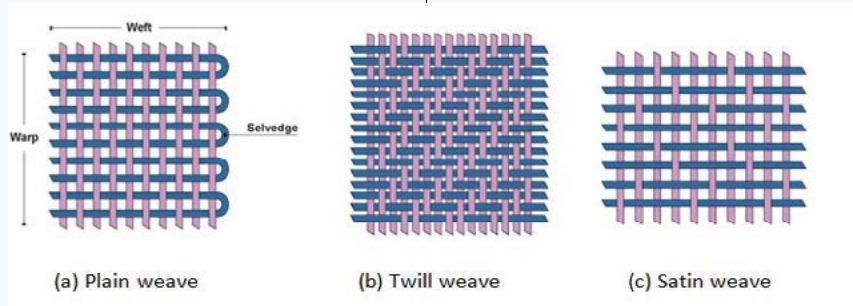
The programmable attachment unit to a weaving machine, which is called jacquard head, can store pattern design and machine control instruction on the punch cards. To understand the Jacquard loom, some basic knowledge of weaving is necessary. Weaving is a method of textile production in which two distinct sets of yarns or threads are interlaced at right angles to form a fabric. The longitudinal threads are called the warp or end, and the lateral threads are the weft or filling [see **Figure 4 (a)**]. The method in which these threads are interwoven aff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oth.

Basic Weaving Technology and Fabrics Produced

There are three basic weaves (Figure 4): Plain Weave, Twill Weave and Satin Weave. All woven fabrics are one form of these basic weaves and their variations **Plain weave fabric** is produced by every other warp ends are lifted and insert weft thread and reversing the lifting for next weft insertion. Plain weave is strong and hardwearing, so it is used for fashion and furnishing fab-

rics. A few examples are poplin and taffeta fabrics. In **twill weave fabric**, the interlacing of weft and warp are offset to give a diagonal pattern on the fabric surface. It's strong, drapes well and is used for jeans, jackets and curtains. In **satin weave fabric**, a complex arrangement of warp and weft threads produces longer float threads either across the warp or the weft. The long floats mean the light falling on the yarn doesn't scatter and break up, like on a plain-weave. The reflected light creates a smooth, lustrous (shiny) surface commonly called satin. Satin fabrics are used for men's, women's and children's wear. Other uses are for sportswear and interior furnishing fabrics.

thick, dense sheets that constrict the airflow around you while you sleep. This steady movement of air is what allows good sheets and bedding to keep you at the perfect temperature for a comfortable sleep. When that airflow is constricted, it causes your body temperature overheat to disturb restful sleep. Additionally, the cheaper cotton will pill heavily on the sleeping surface. This creates a scratchy, abrasive sheet that irritates the skin. However, there is a real honest 600-threadcount bed sheet. This is made of 2-ply super fine either Egyptian or Supima® cotton yarns entered as single yarns in 300-thread count plain weave



(<http://www.bbc.co.uk/schools/gcsebitesize/design/textiles/fabricsrev1.shtm>)

Figure 4. Basic woven fabric structures produced on dobby loom

Practical Application of Weaving Technology

Now you are rewarded for understanding the basic plain weave structure. Let's unravel the marketing misrepresentation or false information: A fancy expensive set of sheet labelled "**800-thread count, made of very high quality cotton yarns**". Bed sheet is a plain weave structure. First, **what is thread count?** This is sum of the number of filling yarns per inch and warp ends per inch. For example, a bed sheet fabric is constructed 80 filling yarns per inch and 120 ends per inch. Then this fabric is designated as "200-thread count" fabric, which is a fine fabric. To make high thread count you need very fine yarn. This requires high quality expensive cotton fibers and high production cost, so bed sheet manufactures use 3-ply cheaper cotton yarns to weave exact same 200-thread count fabric. This can be marketed as "600-thread count" (i.e., 200 times 3-ply yields 600 threads). The combination of cheaper, weaker cotton with multiple plies creates

fabric. Thus 300 times 2-ply will be 600-thread count. Of course, the two-ply yarns are made from two of twice finer yarns plied (or twisted), which is very expensive without constricting airflow or pilling (shedding) short fibers. So what thread count do you need for good night sleep? I would suggest that single-ply yarns made of extra-long staple cotton such as Supima®, which is grown in America. If you can't find extra-long staple cotton, then at least get sheets made of long-staple cotton such as Pima or Egyptian. Quality beddings are typically 180 to 300-thread count, thus 200 to 250-thread count will be the sweet spot for optimum durability, softness, and comfort.

Limitation of Producing Fabrics on Non-Jacquard Loom and Jacquard's Innovation

Fabrics are woven on a weaving loom, a device that holds the warp threads in place while filling threads are inserted through a shed formed of them. Basic weaves and derivatives are produced on a two (2) to twenty four (24) harness dobby looms, but this type of machine cannot produce intricate patterns shown in **Figure 5**, which requires individual warp end should be raised or lowered to make complex

surface texture and pattern. By raising different (not just alternate) warp threads and using colored threads in the weft, the texture, color, design, and pattern can be varied to create varied and highly desirable fabrics. Weaving elaborate patterns or designs (brocade, damask fabrics) manually is a slow, complicated procedure subject to error, and requires weaver and pattern reader. Jacquard's innovative programmable head attachment was intended to automate this process.



(a) (<https://en.wikipedia.org/wiki/Brocade>)



(b) (<https://www.freevector.com/>)

Figure 5. (a) Intricate patterned silk brocade (Lyon, France, 1760-1770) and (b) modern damask fabric

Jacquard was born on 7th of July, 1752, in Lyon, France, which has a rich history involving the silk industry that has impacted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and shaped the economy as well. He was the fifth of nine children of Jean Charles (nicknamed Jacquard) (1724-1772), a master weaver of brocaded fabrics (Figure 5-a), and his wife, Antoinette Rive, who worked as a pattern reader. Because his family had little means and he received only a meager education, his father found him employment as a bookbinder. His employer, who gave the boy some very elementary lessons in mathematics, noticed that Jacquard had a real flair for computations and mechanics. Jacquard returned to the family and took possession of his father's two looms in 1772, and became a weaver himself. He became obsessed with improvement of the looms and soon had to sell the family cottage and the looms to get out of debt. In the midst of this turmoil Jacquard

married, but his financial situation forced him to leave his wife in Lyons to work making straw bonnets while he moved to Bresse for employment and continued to work on improving his loom concept. The French Revolution interrupted his pursuits, and he joined the Lyonesse volunteers against the French army. During the course of the next several years he experienced the death of his son fighting at his side and fled back to Lyon to remain in hiding while his wife continued her hat making. After emerging from his concealment he obtained employment with a manufacturer and at night continued to improve his loom. His employer, upon learning of his interests, advanced him money to modify the loom. Within several months, Jacquard had invented a loom that substituted mechanical power for the hand-labor of the weaver (<http://www.worldhistory.biz/modern-history/83068-joseph-marie-jacquard-1752-1834.html>). Jacquard was not the first to try to automate the process of intricate pattern weaving. In 1725 **Basile Bouchon** invented an attachment for draw looms which used a broad strip of punched paper to select the warp threads that would be raised during weaving. In 1741, **Jacques de Vaucanson**, a French inventor who designed and built automated mechanical toys, appointed inspector of silk factories. Between 1747 and 1750, he tried to automate Bouchon's mechanism. In **Vaucanson's mechanism**, the hooks that were to lift the warp threads were selected by long pins or "needles", which were pressed against a sheet of punched paper that was draped around a perforated cylinder (**Figure 3**). However, Vaucanson's loom was not successful, probably because, like Bouchon's mechanism, it could not control enough warp threads to make sufficiently elaborate patterns to justify the cost of the mechanism. (https://en.wikipedia.org/wiki/Jacquard_loom) In 1801 the loom was displayed at the Exposition of National Industry in Paris and received a bronze medal. Jacquard continued to seek improvements and projects, and his employer provided him with additional funds to pursue them. Soon his work became known to officials of Napoleon's "Department" and he received an invitation to see the Emperor in Paris in 1803. After a lengthy interview, an impressed Napoleon provided Jacquard with (continue to page 25)



정해민 (법대 55)

행복론 (幸福論)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 지기를 원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동서 고금의 현인, 철학자, 시인, 문학가와 성공한 사람들이 남긴 행복에 관한 명언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참된 행복: “행복은 노력에서 오는 것이다.” William Brake (미국 명):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 1865년 6월 13일 ~ 1939년 1월 28일)는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극작가로 192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노벨 위원회는 “고도의 예술적인 양식으로 전체 나라의 영혼을 표현한, 영감을 받은 시”라는 평가를 남겼다. 아일랜드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다.[1] 예이츠는 노벨상을 수상한 이후에도 자신들의 뛰어난 작품들을 완성해 낸 몇 안되는 작가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진다.[2] 예술가인 잭 버틀러 예이츠의 형이며 존 버틀러 예이츠의 아들이다.

2. 잃기 쉬운 행복: “행복은 잃기가 쉽다. 그 것은 항상 분에 넘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 DKF 알베르 까뮈 (Albert Camus: 1913년 11월 7일 ~ 1960년 1월 4일)

3. 주는 행복의 기쁨: “행복은 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다.” 아나톨 프랑스 (Anatole France, 1844년 4월 16일 ~ 1924년 10월 12일)는 프랑스 작가 자크 아나톨 프랑수아 티보(Jacques Anatole François Thibault)의 필명이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평가) - 자신의 행복을 나누어 가질 때 더 큰 행복으로 돌아 옵니다.

4. 만족한 마음: “만족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없다.” 묵자 (墨子): 묵자(중국어 정체: 墨子, 병음: Mòzi: 기원전 470?~391?)는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송 허난 성에서 탄생한 사상가이자 철학자이다. 초기 전국 시대에 제자백가 중 묵가를 대표하는 위인이다. 핵심 사상은 겸애이고 《묵자》에 전한다. 유교와 도교와 대

립하였다.

“만족한 마음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생긴다.”

5. 긴 행복과 짧은 행복: “행복과 불행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살고 있다.”: 게오르게 윈대한 포부를 품고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6. 복된 행복: “남을 복되게 하면 자신

가이다. 독일의 본에서 태어났으며, 성인이 된 이후 거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살았다.

8. 행복의 권리: 자신만이 가지는 즐거움에 대한 주장 - “불만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지 않으면 삶은 즐거운 것이다.”: 앨프리드 러셀 월리스(Alfred Russel Wallace, OM, FRS, 1823년 1월 8일 ~1913년 11월 7일)는 영국의 자연주의자, 탐험가, 지리학자, 인류학자이자 생물학자이다. 찰스 다윈과 독립적으로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의 개념을 만들었다.

“행복한 사람은 불만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며,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남의 흉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며, 행복한 일만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9. 되돌아오는 행복: “남에게 행복을 주려 했다면 그 만큼 행복도 자신에게

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없다. 또 잘 되어간다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큰 만족도 없다.” “행복은 노력에서 오는 것”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그리스어: Σωκράτης, 기원전 470년 경 - 기원전 399년 5월 7일)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 기원전 469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나 일생을 철학의 제 문제에 관한 토론으로 일관한 서양 철학의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직접 어떠한 저술이나 일기를 남기지 않았다. 때문에 그의 제자 혹은 지인들, 대표적으로 플라톤이나 크세노폰, 소크라테스에게 비판적인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 등이 남긴 저술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그의 삶과 사상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나 행적은 대부분이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에 근거한 것이다.

11. 알지 못하는 행복: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불행한 것이다.” 토스토옙스키(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러시아어: Фёдор Михайлович Достоевский 듣기 (도움말·정보), 문화어: 표도로 미하일 로비츠 도스토옙스키, 1821년 11월 11일/구력 10월 30일 ~ 1881년 2월 9일/구력 1월 28일)는 러시아의 소설가이다.)

12. 앤드류 카네기의 행복론: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나 떨어져 있다. 그것을 찾아 기웃거리고 다니다가 전에 먼저 마음의 눈을 닦아라” 앤드루 카네기(Andrew Carnegie, 1835년 11월 25일 ~ 1919년 8월 11일)는 미국의 철강 재벌이다. 2008년 기준으로 세계적인 철강회사인 US 스틸은 카네기의 철강회사를 투자자인 JP 모건이 합병을 통해 설립한 회사이다.

13. 행복 지수: “행복을 원하거든 작은 일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마음의 눈을 길러야 한다. 작은 일에서 즐거움을 얻는 일에 익숙해 질수록 행복지수는 높아 지는 것이다.” 헨리 워드 비처 (1813-1887) (Henry Ward Beecher, 1813~1887, 남성, 미국, 성직자[clergyman], 노예 폐지론자)

14.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 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 장 7 - 8 절)

10. 소크라테스의 행복관: “잘 되겠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 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 장 7 - 8 절)

이 행복해 진다.”: 클라임 남을 위해 사랑을 심으면 자신이 그 사랑을 거두고, 기쁨을 심으면 그 열매 또한 자신이 거두며, 웃음을 심으면 자신이 행복해 진다. 이렇게 타인을 위해 노력할 때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행복의 법칙이다.

7. 베토벤의 행복관: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최선의 일이며 최대의 행복이다” 베토벤은 어린 시절부터 남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최대의 행복이었으며 즐거움이었다고 했다.: Ludwig Van Beethoven, 문화어: 루드위히 판 베토벤 (1770년 12월 17일 ~ 1827년 3월 26일)는 독일의 서양 고전 음악 작곡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편집부>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가발과 함께 걸어온

나의 86년 인생

(Part 3)

이준행 (공대 48)

옛장수들이 모아은 부녀자들의 머리카락이 가발 재료가 되었다

그렇다면 1960년대에는 가발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장수들이 손수레를 끌고 전국을 누비며 모아 온 부녀자들의 머리카락이 가발의 재료가 되었다. 또, 생활비 때문에 동생 학비를 대느라, 부모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라 판 여성들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가난때문에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공장에 들어가 여공 노릇을 해야 했던 어린 여성들의 이야기는 드라마나 소설의 단골 소재였다.

그때 만들어진 한국산 가발과 속눈썹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영화 클레오파트라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즐겨 사용한 가발과 속눈썹도 한국산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1964년 첫 가발 수출액은 14,000달러였지만 이듬해 미국에서 중국산 가발의 수입이 금지되면서 가발 수출액은 무려 155만 달러까지 급증했다. 그러자 정부는 가발 가능 양성소까지 세우며 가발산업을 지원했다. 가발은 1970년대 초까지 한국 총수출의 약 1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효자 상품이였다.

홍콩에서 일본으로

"미스터 리, 나와 함께 홍콩에 갑시다."

크리스만 부사장은 홍콩 공장에 방문할때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길 즐겨위했다. 그리고 공장 시설과 기계들을 보여주며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가발 설계와 제작 노하우를 전수해주었다.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분이 다. 홍콩 공장을 둘러보고 한 음식점에서 나와 마주한 크리스만 부사장은 갑자기 명함하 나를 건네 주었다.

"미스터 리, 곧장 한국으로 가지말고 일본 카네카론사에 들러 인사하고 가십시오" "네? 무슨 일이라도...," "앞으로 카네카론사가 가발업계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는 사람 사람 한 명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내가 주는 이 브렌트우드사 명함을 가지고 가면 카네카론사에서 환영해 줄 것입니다."

한국사람으로 처음 카네카론사를 방문하다

갑자기 일본에 가라니, 황당했다. 크리스만 부사장에 대한 기본적 신뢰에도 불구하고 나는 쓸쓸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대로 일본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무작정 떠났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카네카론사 앞에 도착하자 경비가 나를 막고 질문했다. 나는 말없이 브렌트우드사 명함을 내밀며 약속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얼마 후, 몇명의 무리가 황급히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중에 책임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나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아! 이상, 반갑습니다." 지나칠정도로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며 카네카론 본사 건물로 나를 안내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가발 원사에 대해 설명하며 제작공정과 기계까지 상세히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도 내 눈치를 보며 브렌트우드사와 나와의 관계를 궁금해 했다.

"유학시절, 브렌트우드사에서 일을 하며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도 사업파트너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가발 원사 25Kg과 원사를 세팅하는 기계를 선물 받다

나의 얘가를 들던 카네카론사 사람들은 연신 "오~" 라는 탄성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나의 말을 경청했다. 그리고 사무실로 데려가 나를 앉히더니 선물을 준비했더니 박스 두개를 꺼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한번 열어 보시지요."

놀라게도 그것은 카네카론 가발 원사 25kg과 원사를 세팅하는 기계였다.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하하하, 이상, 한국에 가시면 이 기계를 설치해 저희 원사로 가발을 만들어 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테니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당시만해도 카네카론사의 원사를 얻기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청탁을 넣었다고 한다. 어떤이는 장관의 이름을 내세우고 심지어 일본 수상이 압력을 행사해도 요지부동이었다고 한다. 그런 시기에 순진한 시골 청년같은 내가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카네카론 원사 배정을 받았던 것이다.

수출이라는 단어는 암행어사의 마패같은 효력이 있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들을 들고 한국으로 가던 나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곧 막걸 세관 검사사가 걱정되었다. 사실, 1960년대는 한국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여 수출입 허가 자체를 받기에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뿐만아니라 당시에는 밀수도 많았다. 때문에 세관에서 모든 물품을 직접 검사하였다.

"가지고 오신 물품이 무엇입니까?" 세관 책임자는 나에게 물었다. "일본에서 가발을 만들기 위한 원사와 기계입

니다. 이것들만 있으면 더욱 많은 가발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은 잠시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더니 쉽게 통과시켜주었다. 수출을 장려하던 정부방침 때문에 어렵지 않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수출"이라는 단어는 마치 암행어사의 마패같은 효력이 있었던 시절이었다.

허리를 다치고 불운이 시작되다

젊은 시절, 나는 운동을 좋아했었다. 특히 골프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가끔 골프 회동을 가졌었다. 그러던 어느날,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몸살기운이 있어 약을 먹고 잠이 들었던 새벽무렵이었다.

"따르릉" 일요일 새벽 5시, 친구들은 그 새벽에 전화를 걸어와 골프를 치자며 나를 설득했다. 몸 상태가 안좋다고 둘러댔으나 오히려 친구들은 감기몸살은 골프로 땀을 빼야한다며 반 강제로 나를 데리고 골프장으로 갔다. "악! 내 허리가!" 그날따라 운대가 안맞았는지 골프채를 휘두르는 순간 뒷목부터 척추에 강한 통증이 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다. 친구들의 부축으로 간신히 집에 돌아와 앓고 있을 즈음 카네칼론사의 하네다 가즈오란 사람이 전화했다.

"이상, 지금 우리가 한국에 왔는데 의논할 일도 있고 여기 일본말을 통역할 사람도 없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갈 수 없었다.

"지금 내가 사정이 있어 그러니 미안하지만 수요일에 만났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며칠을 기다린 하네다 가즈오는 약속한 수요일이 되자 오전 일찍 전화를 했다.

"이상, 수요일입니다. 오늘 몇시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져 움직일 수 없었고 가즈오에게 핑계를 댄 후, 토요일로 약속을 미루었다. 좀처럼 허리통증이 나아질 기미가 안보였던 나는 토요일이 되자 죽기 살기로 전통제 6알을 먹고 장충동에 있는 국제호텔로 향했다. 마음은 급했고 운전은 할 수 없었으니 집사람이 나를 대신해 운전했다.

이미 떠난 하네다 가즈오

국제호텔에 도착해 프론트에 서있던 직원에게 물었다. "여기 일본에서 온 하네다 가즈오씨를 만나려 왔습니다." "그분들께선 어제 떠나셨습니다." 호텔 직원의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당황했다. "그렇리가 없습니다. 분명 제가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확실합니다. 어제 모두 체크아웃하시고 일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몰랐다. 그때에 내가 어떤 행운을 놓쳤는지 말이다. 지금에 와서도 계속 후회하는 일들이 그때에 벌어졌었다.

(계속)



이완택 (의대 65)

번역 문학의 맛과 멋

1. 기: 번역의 당위성 (inevitability)

내 이제 훈(訓)과 음(音)을 정리해서 모든 백성들이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함이니라. 번역쟁이들의 꿈이다. 한국에서의 번역에 관한 노력은 신라의 설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우리말을 표현하고자 어휘부와 문법부를 모두 한자에서 빌린 이두문자를 창안해 내었으나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도 지식층에서는 주로 한문에 주력하였고 한글은 상놈이나 쓰는 말(謬文)로 전락되어 문서를 번역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글은 진서(眞書)로 써야 했기에 문과 출신인 서장관의 몫이었고 말이나 옮겨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역관들은 사내부가 할 것이 아니라 해서 잡과 출신의 중언급급이 담당했다.

통역은 창녀, 군인과 더불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 중의 하나였지만 한국에서 역관을 천시했던 이유는 여러 차례에 걸친 침략 때 그들이 외세에 빌붙어서 일신상의 호의호식에만 탐닉했던 것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병자호란 때의 정명수를 비롯해서 대한제국의 배정자, 미 군정 하의 남한이나 소련 점령의 북한에서도 통역들의 행동이 곱지 않게 그려져 있다.

해방과 더불어 서구문화 특히 영미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역가나 번역가는 아직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회의의 통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출판업계의 1/3을 차지하는 것이 번역물이라는데 번역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아직도 “알바”라는 유령 번역가들이 판을 치고 있고 번역가의 판권은 예외 없이 출판사가 다 사들인다고 한다. 교수들 중에는 실제 작업은 조교나 대학원생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감수 정도만 하는 경우도 비밀비재하다.

2014년 12월 현재, 한국 최대의 문인단체인 한국문인협회의 회원 12,733명 중에는 28명 만 외국문학 분과에 등록되어 있고 국제 PEN 한국본부에는 전체 회원 3,200여 명 중 61명 만이 외국문학을 전공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외국 문학자가 다 번역 문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과에 속한 회원이나 비회원도 번역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번역 문학의 중요성이나 경제성에 비해 한국에서 번역 문학가의 존재가 미미하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오던 한미 FTA가 4~5년이나 걸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에 비준된 배경에는 영어로 쓴 협정문의 한글 번역에서 발생한 300여 건의 오류가 한 몫을 담당했다고 하며 한때 통상교섭본부장의 “문학에도 직역과 의역이 있다.”는 변명에 “그것은 의역이 아니라 번역이다.”라는 말이 트위터 공간에서 회자된 적이 있었다.

또한, 2014년 런던 도서전에 참가한 한국 작가 중 황석영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영문 번역할 만한 좋은 번역자가 많지 않은 것이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가장 큰 핸디캡”이라 했고 이문열 역시 ‘문학 한

"근래에 각광을 받고 있는 번역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번역이 있으나 기계는 글자를 encode(기호화)↔decode(판독) 할 수 있어서 문법적이나 개념적 의미의 언어학적 지식은 풍부하지만, 글의 다중적, 잠재적, 문맥적 또는 감정적 의미 같은 비언어적 지식은 제한되어 있다."

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번역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동의했다. 한국이 노벨상을 받지 못한 이유가 딱 짊어서 양질의 번역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출판업계의 1/3을 차지하는 것이 번역물이라는데 번역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아직도 “알바”라는 유령 번역가들이 판을 치고 있고 번역가의 판권은 예외 없이 출판사가 다 사들인다고 한다. 교수들 중에는 실제 작업은 조교나 대학원생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감수 정도만 하는 경우도 비밀비재하다.

한국 과학사의 거장 박성래 교수는 한국의 근대화가 늦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통역이 없기 때문”이라 했다. 조선조에서는 통역은 다 ‘하인’들을 시켰으며 특히 대원군이 서양인들을 ‘양귀라’ 하고 서양선교사들을 모두 침수시키는 통에 일본에는 1862년 서양 말을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있었으나 한국에서는 1883년까지 서양 말을 하는 사람이 윤치호 혼자뿐이었다고 한다.

일본은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부터 도쿠가와 막부후 주선으로 란가쿠(蘭學) 학자들이 네덜란드 글로 된 서양 서적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1950년대 민간 합동으로 번역 사업을 추진하여 2,000년에는 일본 작가 4천여 명의 작품 1만 5천 권 정

도가 외국어로 번역되었다고 하니 일본이 2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내는 동안 한국이 한 명도 못 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대통령 의전비서실, 외교통상부, 재외 한국문화원 등에서 통역이나 번역에 대한 실무와 이론을 연구해 오다가 2005년 한국문학번역원이 창립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정부 나름대로 컴퓨터를 사용한 자동기계 번역인 ‘세종 계획’을 시행해 왔고 내외 번역가를 초청하여 강의도 하고 문학상을 수여하는 모양이나 아직까지는 2,000년에 개설된 외국어 대학 통역번역 대학원 등 5~6개의 대학원과 민간 주도의 몇몇 학회나 협회 등 민간단체가 번역 문화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한다.

한국 근대 번역활동은 1897년 교육부에서 발간한 <대서신사>, <중일약사>, <미국독립사> 등 역사물 번역을 효시로 1907년 대한매일신보사에서 간행한 <라부안전서>, <피득대제> 등 위인전기로 이어져서 번역물은 청소년층과 지식층을 향한 계몽서적이 주를 이루었다. 문학작품으로는 1890년도 초에 윤치영이 번역한 <이슈이 이야기>, 1895년에 J.S. 게일이

신이 나고 멋이 있는 일에는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다. 평자는 availability를 ‘추파’로, tolerability를 ‘정조’라고 번역하고 나서 얼마나 가슴 뿌듯했는지 모른다. 과연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맛있고 맛있는 말들을 골라 낼 수 있었는가(?)

번역도 다 제 잘난 맛에 하는 것거리이다. 제 멋에 거워서 춤추는 사람들, 누구도 못말리는 사람들, 자나 깨나 짝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만이 번역 문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2. 승: 번역의 실행성 (feasibility)

사람끼리 서로 소통하는 방법으로 말과 글이 있다. 한 나라의 말을 다른 나라의 말로 해명하는 것을 통역(interpretation)이라고 하고, 한 나라의 글을 다른 나라의 글로 해석하는 것을 번역(translation)이라고 한다. 말은 한 번 뱉으면 그만이어서 일시적, 즉흥적인데 반해 글은 고치고 또 고칠 수가 있어서 점진적, 영구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말을 잘하려면 순발력이 있어야 하고, 글을 잘 쓰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대학의 어학과 학목을 보면 영어과(Dept. of English Language)는 대개 사범대학 소속이고 영문학과(Dept. of English Literature)는 문리대에 속해 전자는 언어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후자는 글과 창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문별 사고방식으로 따져 보면 통역은 영어과 출신이, 번역은 영문학과 출신이 해야 하겠으나 말과 글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통역과 번역의 영역이 그렇게 딱 떨어지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서 어떤 대학은 싸잡아서 영어영문학과(Dept. of English)로 통합시킨 곳도 있다.

통역이나 번역이나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일진대 이때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쓰던 말을 모국어라 한다. 그러나 이 모국어란 것이 정의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구사 능력도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내 조카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미국 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으로 귀국해서 한국 학교에 다녔는데 대학 졸업 후 유학 와서 영어 때문에 속 껌나 썩었다. 만약 그 애가 한국에 가서 외국인 학교를 다녔다면 애기가 달라졌을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언어의 개발에 뇌에 있는 언어 중추가 성숙되는 시기인 초등학교(grammar school)를 어디서 다녔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미국 가정에 입양돼서 미국 부모 밑에서 매일 햄버거 먹고 미국 TV 보고 미국 중교를 졸업한 사람은 모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가 없다.

언어의 발달에는 ‘친모’(nature)보다는 ‘양모’(nurture)가 더 중요하며 언어 구사 능력은 타고 나는 것보다 학습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배우지 않으면 편지 한 장 제대로 쓰지 못한다. 특히 문자는 말보다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이 없으면 글을 이

해하기 어렵다. 학습은 배워서 아는 것도 있지만 경험으로 터득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평자는 ‘풋사랑’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사전을 찾아보니 ‘calf love(망아지 사랑)’ 또는 ‘puppy love(강아지 사랑)’라고 나와 있었다. 내용상 귀엽다는 뜻보다는 어리석다는 뜻이 압도적이라 calf love라 하고 의기양양했으나 ‘본토박이’ 딸애가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제 멋은 안 나지만 물어 겨자 먹기로 puppy love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

번역을 외국어를 모국어로, 또는 모국어를 외국어로 옮기는 것으로 나누지만 제2 외국어나 제2 모국어라는 말이 있어서 차라리 상용어를 비상용어, 비상용어를 상용어로 번역한다는 편이 더 포괄적이다. 그러나 이것도 따져보면 가정에서는 한국어, 직장에서는 영어를 쓰는 것 같이 상용어가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냥 ‘출발’이나 ‘도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모양이다.

이상적인 번역자는 출발어와 도착어에 다 능통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앙드레 지드의 말마따나 출발어 실력도 상당하고 도착어 실력은 그 이상인 사람이겠으나 이와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은 가뭄에 콩 나기보다 더 어렵고 특히 출발어와 도착어로 동시에 문학 작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 별 따기일 것이다. 차선책은 외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 작가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외국 작가를 발굴하는 일일 터인데 전자는 이민 1세, 후자는 이민 2세에 기대해 볼 만 하다.

그러면 이민 1.5세는 어떤가?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들은 대개 모국어는 한국어이지만 상용어는 영어이다. 번역할 때 상용어를 비상용어로 옮기는 것보다 비상용어를 상용어로 옮기는 것이 훨씬 쉽다. 따라서 한→(영) 번역의 최적임자는 이민 1.5세들이나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이다. 다만 이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영어에 문학적 자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 되고 있다.

얼마 전 김정은을 어릿광대로 묘사한 풍자만화 <Interview>에 그가 아랫도리에서 이상한 소음을 내면서 벌레 씹는 표정을 짓자 기자가 “Did you just shart?”라고 묻는 대목이 나온다. Shart는 ‘shit’과 ‘fart’의 합성어로 원래 의도는 방기(放氣)였으나 공교롭게도 내용물이 따라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아직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이를 ‘똥방기’로 번역을 해야 할지 ‘방귀똥’으로 번역해야 할지 논의의 여지가 있었으나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영어만 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비속어에도 능통함은 물론 시대감각도 뛰어나야 한다.

번역에는 번역의 대상에 따라 실용번역과 문학번역이 있는데 문명의 발달로 각종 전문 서적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번역에서 전문지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문학번역에서도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으로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의학서적 번역에는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며 시는 시인이 제일 잘 번역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의학 대학원에 번역 전문학과를 설치하고 시인협회에 번역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6세기, 르네상스의 물결을 타고 프랑스에서 번역의 불이 일어났을 때 시인 뒤벨레는 ‘번역 불가능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라틴어를 프랑스어로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자를 찾을 수 없으며 특히 시의 번역은 원문의 아름다움을 살리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번역을 단어 대 단어로 대응시켜야 한다는 언어적 차원에서 한 말이고, 번역은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면 된다는 실용적 측면은 염두에 두지 않은 말이다.

근래에 각광을 받고 있는 번역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번역이 있으나 기계는 글자를 encode(기호화)↔decode(판독) 할 수 있어서 문법적이나 개념적 의미의 언어학적 지식은 풍부하지만, 글의 다중적, 잠재적, 문맥적 또는 감정적 의미 같은 비언어적 지식은 제한되어 있

"유연하다는 말은 여유가 있다는 말이다. 여유가 있다는 말은 넉넉하다는 말이다. 넉넉하다는 것은 아옹다옹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저 줄 아량이 있다는 뜻이다. 여유 있는 번역가는 원작자와 경쟁하지 않는다. 때로는 상대방 (원작자)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야 한다."

다.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서울 이태원에 있는 ‘육회’를 ‘six times’, ‘방어구이’를 ‘fried defence’라 번역해 놓은 음식점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충하려고 한국 정부는 세종계획의 일환으로 그동안 발표되었던 논문과 논설, 영상 및 음성 자료를 바탕으로 1억2천만 개의 말뭉치(corpus)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뭉치를 취사선택하는 일은 결국 사람의 손(머리)을 빌리지 않을 수 없으므로 완벽한 자동번역은 기대할 수 없다.

번역자의 책임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가감 없이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번역은 읽는 사람에게 쓴 사람이 독자한테 기대하는 효과와 같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등가’를 찾는 작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자가 작가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격으로 작가의 심중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2011년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Please Look After Mom>를 영역한 김지영 씨는 작가와 1

년 가까이 많은 대화를 하면서 작가와 이체일심으로 영어를 다듬었기 때문에 그의 글이 번역서 같지 않고 처음부터 영어로 쓴 것처럼 독자들에게 잘 먹혀들어 갔다고 한다.

번역이론의 대가 셸레스코비치는 번역을 “남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자기가 이해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인지발달이론을 전개한 진 피아제는 모든 인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고 사회적 사그는 라틴어를 프랑스어로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자를 찾을 수 없으며 특히 시의 번역은 원문의 아름다움을 살리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번역을 단어 대 단어로 대응시켜야 한다는 언어적 차원에서 한 말이고, 번역은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면 된다는 실용적 측면은 염두에 두지 않은 말이다.

3. 전: 번역의 다양성 (diversity)

한국 소설가 이문열 씨의 영어 번역판 중에 <Our Twisted Hero>라는 책이 있다. 평자는 처음에는 한글판 원본을 보

봐 자세한 모양이다.

더 나아가서 쌍과부란 말은 무엇으로 번역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double widow: 중과부-重寡婦(윤 직원 영감에 의하면 이는 한 여자가 두 명의 남편을 잡아먹은(swallow) 경우이다.)는 아니다. 쌍과부는 한 집에서 대대로 두 명의 과부가 산출되었거나 여자 형제가 두 명 다 과부가 된 것을 일컬음으로 여학적으로는 a pair of widow 또는 duplet widow가 맞는 말이나 흔히 ‘쌍과부집’이라면 ‘남자들이 환영받는 집’이란 말이 숨겨 있으므로 이 말을 썼다가는 때과부들한테 끌려가서 가랑이가 찢어지겠지만 ‘hungry widow’라 해야 제 맛이 난다. 그 누구도 이와 같이 여성의 관심을 끌려는 피나는 노력을 ‘A truly Herculean effort’라고 하지 않겠지만.....

문장에는 개념적, 문법적, 지식적, 감정적, 잠재적 의미가 있다. <우리의 빛나긴 영웅>이란 제목에서 영웅의 개념은 ‘뛰어난 사람’이고, 문법적으로는 ‘우리의 빛나긴’이란 말로 추상적인 데서 구체적으로 영웅의 범주를 좁혀주고 있으며, 지식적으로는 그동안 배운 바에 따라 어떤 종류의 인간을 뜻하는지 감지하는 일이고 감정적 의미는 각자의 경험에 비추서 그 글이 읽는 이를 기쁘게도, 슬프게도, 웃기게도, 화나게도 만든다는 점이다.

한글에서도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는 다중적 의미를 지니는데 영웅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쓸 때, 여학생들이 쓸 때, 노동운동가가 쓸 때, 또는 깡패 조직에서 쓸 때,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빛나긴’이란 말도 내가 쓴 화살이 빛나갔을 때와 내게로 쓴 화살이 빛나갔을 때 그 긴박감의 차이 또는 내 행동이 빛나간 것과 남의 행동이 빛나갔을 때 느끼는 혐오감의 차이 등은 같은 문자라도 경우에 따라 그 의미가 증폭되거나 축소된다는 예이다.

우리란 또한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리들(?), 우리 식구(?), 우리 친구들(?), 우리 동네(?), 우리 민족(?), 우리나라(?)..... 그러나 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기의 우리는 우리 ‘조래’를 일컫는 말로 작가가 십 대 초반이었을 당시 동년배의 한국의 아들딸들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단어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가 궁극적으로 주위의 다른 단어들과의 상호작용과 그 글에 내포된 전체적인 뜻의 흐름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된다. (나중에 알고 보니 <Our Twisted Hero>의 원제목은 <일그리진 우리들의 영웅>이었음)

<Peace Under Heaven>에서 역자가 윤직원 영감을 Master Yun으로 번역했을 때 고민해나 했을 것이다. 직원이란 조선시대 말단 명예직 벼슬이며 영감은 그냥 나이깨나 먹은 사람에게 붙여주는 호칭이다. Old man은 너무 싱겁고 Sir이나 Lord는 일자무식, 자린고비, 변태 성욕자 에다가 생김새가 두꺼비같이 생겼다고



강신용 (사대 73)

땅 냄새

10월에 다녀온 고국의 하늘이 그림다. 산과 들이 가을을 머금고 붉게 물들었다. 웅기중기 집집마다 붉은 머리 띠를 두른듯 울타리 감들이 사이좋게 지키고 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앞마당 배추포기와 어우러진 곱속의 고향땅 모습이다. 시외버스 차창밖으로 보이는 밀양의 모습에서 고향 가는 착각속에 사로잡힌다.

박경리의 토지가 생각난다. 아마 밀양이 하동에 가까운 탓인지 유난히 감나무가 많아서 인가보다. 어린 시절을 보낸 상주는 감에 대한 추억이 유난히 많은 곳이다.

처음 열린 홍시를 따서 어머니께 드리는 것은 큰 자랑이었다. 홍시는 큰 감나무의 맨 꼭대기에 늘 매달려 있었다. 까치가 입질한 것이 홍시로 익었으니 어린 나무가지 위에서 어서 오라 유혹한다. 반으로 꼭 잘라 주면서 바라보던 모습이 길가 농가에서 어머니 눈길에 느껴진다.

땅은 생명이라고 했던가. 호미들과 밭고랑을 매던 모진 모습이 옛 일인데 지

금도 그 모습에서 생명을 느끼고 있다. 먹거리가 귀하던 시절이었다. 감자는 귀중한 밥반찬이고 썩어서는 먹을 만드는 귀한 땅속 작물이다. 감은 버릴 것 하나 없는 귀한 과일이다. 농으로 나이드 어른을 영감이라 듯이, 시간따라 감이 달라진다. 푸를 때는 삶여 먹고, 붉은 감은 곱감으로 내세를 보낸다. 그도 저도 다지나 감식초로 찬장에 사는 고마운 과일이다. 우물가 너머로 감자 썩는 냄새는 땅이 잉태한 삶의 내용이다.

여러해 전 처음 중국관광을 다녀왔다. 단군 이래 대한 민국이 중국과 대등한 것은 처음이라 한다. 한국인 관광객은 가는 곳마다 조선족 통역관들의 해박한 설명과 상품을 팔기위한 서비스는 한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책이나 영화에서 보던 사적지와 현지에서 느끼는 거대하고 웅장함은 너무나 차이가 많다. 서태후의 이화원이라는 여름 궁전은 약 78만 평이고 미국식으로 650 에이크이라니까 골프장이 약 5개쯤 되는 셈이다. 약 500에이크에 이르는 곤명호는 맨손으로 만들고 이 흙이 모여 만수산이 되었던다. 조선족 3세인 가이드의 표정위로 미묘한 대국의 궁지가 느껴진다.

겨진다. 서태후가 뿌린 씨앗이 땅싸움을 만들었다. 중국은 다오위다오 섬이라고 하고 일본은 센카쿠 섬이라고 한다. 마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하고 저쪽은 다케시마라고 하는 것과 같다. 땅방 대해에 있는 조그만 돌 섬도 땅이다. 섬나라 일본은 500년전 풍신수길의 조선땅을 침략하고 중국까지 차지하려는 야욕을 가졌다. 그의 야심은 일본이 통일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요구했다. 조선 땅에서 내린 굶주림과 젊은 생명은 얼마나 빼앗아 갔는가. 땅은 생명을 키우고 지키기도하지만, 피를 뿌리며 명줄을 내주는 무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땅은 사람을, 하늘은 땅을 지배한다. 한자로 인법지 지법천(人法地, 地法天)라고 쓴다. 태어나 태줄은 땅에 묻고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한평생이다. 한 사람은 땅이 한평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곡물을 키우고 살수 있다 한다. 한평 땅때기면 자는 공간으로 죽어도 한평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한평생이라고 한다. 성경에 낙원을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다. 자연은 땅과 공기와 빛으로 인간을 축복해 준다. 땅은 우리를 지배하지만 명줄을 지키는 꿀도 주고 행복도 안겨주는 안식처이다.

쇼팽과 흄 한자루는 많은 의미가 있다. 폴란드가 패망할 때 조국의 흄을 가방에 넣고 이국땅 프랑스에서 평생 고국을 그리며 살았다. 가난하고 고독한 그는 조국의 흄내음을 맡으며 피아노 작곡에 열중할 수 있었다. 물설고 낫설은 이땅에서 시시 때때로 크고 작은 노스

텔리아에 눈물흘리며 살아간다. 지금 먼 고향땅을 바라보고 그리운 얼굴을 생각하면서 눈물나게 일들이 옆에 있다. 쇼팽은 유언으로 죽으면 조국의 흄을 자신과 같이 묻어 달라고 했다. 쇼팽의 가슴속에 고국의 흄은 생명의 뿌리를 의미한다.

조선족 가이드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 조선족 3세인 가이드는 정체성에 갈등하고 있었다. 중국 국적 중국인이지만 자신은 한국인의 심장이 된다. 한인으로 교육받은 우리 동포였다. 조선족 모습에서 미국 자녀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김치와 쌀밥에 된장찌개를 사랑하는코메리칸, 햄버거에 콜라를 들고 어눌한 한국말을 하는 아이들이다. 조선족의 갈등이 모두의 아픔으로 가슴에 닿는다.

이땅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땅깊이 내려야 한다. 이민세대는 쇼팽같은 열정으로 맨 땅에 부딪치면서 여기까지 왔다. 한평 땅이라도 뿌리를 내려야한다. 여차피 신대륙은 이민의 나라아닌가 말이다. 초가삼간 집이던 발태기던 많이 많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한다.

땅내음이 좋다. 호미로 일하던 도저로 가꾸던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 밖에 없다. 여기 묻혀 조상이 되어 고국 땅내음을 후대에 전해야한다. 감나무 울타리쳐진 땅내 배인 땅내음이 그림다

감사합니다.

강신용 CPA, 수필가

해서 윤 두꺼비로 불리던 윤두섭이에게는 과분했을 것이다.

Master Yun은 평자가 보기에도 아주 적절한 번역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부르기도 듣기도 부담이 없다. 그런데 이 Master란 말을 윤 직원 영감이란 사전지식 없이 다시 한 번 한국어로 역(逆)번역해 보자. 주인, 업주, 임자, 고용인, 승자, 거장, 가장, 장자, 나리 등 여러 대응어가 있으나 이곳에서는 가장이나 나리가 제일 적당한 대역(對譯)일 것이다. 즉 한국어 윤 직원 영감을 Master Yun이라는 영어로 번역했다가 Master Yun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원래 출발어인 윤 직원 영감이 아니라 윤 나리나 윤 장자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역자가 중간에서 뺄땀을 때어 먹은 것 같아서 원작자가 썼던 윤 직원 영감에 비해 윤 장자는 어감이 풍부하지 못하다. 또한, 전 씨는 ‘뽕퉁해 가지고 종알뽕니다.’를 그냥 ‘맛있게 “retorted sourly”라고 ‘발췌개역을 했는데 원작자의 입장에서 보면 ‘번역은 번역이다’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원작자가 직접 번역을 해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언어마다 어휘에 제한이 있고 또한 개인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Our Twisted Hero>는 오랫동안 경희대 영어교수를 한 아이리쉬계 신부가 번역했으니 “이 새끼!” 라는 욕에 대한 적절한 영어를 찾지 못해 그냥 “Sekki!”로 내버려 두었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매일 같이 쓰고 듣는 말이지만 “bastard”, “sun of beach”, “rascal”도 “새끼”가 풍기는 독특한 맛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Peace Under Heaven>에 나오는 전주책(Chonju Taek)도 “Woman from Chonju”, “Chonju born woman”, “native Chonju woman” 등으로 글을 멋대가리 없게 만드느니 차라리 우리의 정서에 맞게 수더분한 맛이나 살리고자 그냥 ‘Taek’으로 뉘 둔 모양이다. 어떤 이는 번역은 재표현(reexpression)이기 때문에 멋(치장)을 부릴 수는 있지만, 맛(내용)은 바꿀 수 없다고 하고 어떤 이는 번역도 일종의 영적인 활동(제2의 창작)이기 때문에 내용에 간을 쳐서 독자들의 입맛을 돋워 주어야 한다고 한다. 과연 맞도 있고 맞도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 정확성(맛)과 가독성(맛)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인가? 어디까지가 충신이고 어디서부터 역신(逆臣)이 되는가?

LA 문인 이윤홍은 <Mz. 황>이란 글에서 천하색녀 어우동과 천하명기 황진이를 비교하면서 못 사내들이 황진이보다

어우동을 선호한다고 했다. 이때 작가는 ‘죽여주는 여자’를 팜파탈(Femme Fatale)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멋보다 맛에 더 끌린다는 말로, 화려하지만 원문에 충실하지 않은 번역을 번역쟁이들은 벨 잉피델(Belle Infidele: ‘아름다운 부정한 여자’)이라고 해서 일종의 금기로 여겨왔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자크 앙모로 그는 그리스 고전 번역으로 왕의 고문관까지 되었으나 가독성을 살리느라 원문에도 없는 내용을 첨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불어에 Femme Fatale이란 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는 그야말로 ‘죽여주는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아름다운 부정한 여자’보다 ‘죽여주는 섹녀’가 얼마나 더 끌기좋은 번역인가? 그러면 과연 ‘끝내주는 여자’는 무엇이라 해야 하는가? Femme Finalé(‘팜피날레’)라고 한다면 칭찬을 받을 것인가? 돌팔매질을 당할 것인가? 오우삼 감독이 만든 영화에 페이스 오프 (face off)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얼굴을 바꿔치기한다는 말로서 전형적인 Konglish(한국식 영어)이다.

다시 <태평천하>로 돌아가서, Master Yun은 사내를 욕할 때는 항상 “이, 잡

어 뽕을 놓아!”(You bastard, I’ll have your balls cut off!”) 계집을 욕할 때는 자신의 마누라, 딸, 머느리를 막론하고 무조건 “저 짝 찌를 년!”(That frigid bitch!)이라 했는데 남성에게 제일 모욕적인 언사가 거세시킴겠다는 것이고 여성에게는 밀이 벌어지지 않아서 남자가 소박을 뺐다는 말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의역(paraphrase) 또한 ‘벨 잉피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었지만 “I will pull out your penis:”나 “separate your legs”라 한다면 무슨 맛인가? Belle Infidele을 “벌레 먹은 장미”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은 역자의 능력이자 권리이다.

4. 결: 번역의 유연성 (Placticity)

우리가 모든 번역물의 귀감으로 생각하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옮긴 것이라고 내용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오랫동안 찬찬을 받든 하는 분들이 번역에 참여했으므로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나는 것을 극도로 억제해 왔을 것이다. 다만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y thy name...” 등에서 보듯이 문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최상의 맛을 부렸으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에서와 같이 동음이



정양수 (의대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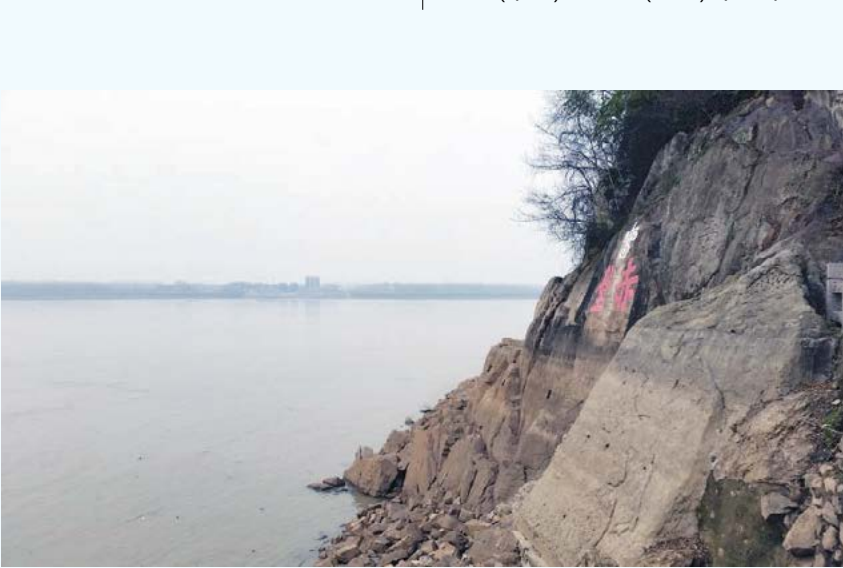
風流(풍류)

풍류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조선시대에 갓을 쓴 閑良들이 妓女(기녀)들과 함께 술판을 벌리며 詩를 읊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꼭 이런 것만을 풍류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르겠으나,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옮겨나 흥이 나서 흥얼거린다거나 노래를 한다던가... 이런 것 아니겠는가. 男女老少를 막론하고 浪漫的(낭만적) 환경에서 자기만족을 위한 예술 행위는 모두 풍류라 부르고 싶다. 거기에는 情緒(정서)를 高揚(고양)하거나 韻致(운치)를 더할 수 있다면 錦上添花(금상첨화)일 것이고.

<其一>
吟風弄月(음풍농월)

이른 저녁을 먹고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초저녁에 동네 산보를 나갔다. 할멈과 정다운 얘기를 나누면서 손은 잡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달이 점점 밝아지면서 곁에 火星(Mars)이 바짝 붙어오는 동안, 金星(Venus)은 서쪽으로 많이 기울었구나. Smart phone으로 쇼팡의 piano음악을 몇 곡 듣다가 蘇東坡(소동파)의 赤壁賦(적벽부)를 한번 읽어보았다. 이번에는 흘러간 옛날 노래로 방향을 바꿔서, 1937년에 탄생한 海島曲(해조곡)을 들어봤다. 필자가 중딩일 때도 많이 유행했던 노래니, 우리 가요 중에서도 長壽하는 명곡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 곡을 지은 이는 “타향살이 몇 해던가”와 “목포의 눈물”을 작곡한 孫牧人(손목인) 씨, 손목인이라는 藝名 외에 楊想浦(양상포)라는 이름도 썼다. Youtube로 이 가수 저 가수를 불러서

노래를 “시켜보는다”, 이난영이 부터 김용임, 최유나, 이미자, 금잔디, 주현미, 문희옥, 최진희 등 열몇 명 중 優美(우열)을 가르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굳이 등수를 매긴다 면는 최유나가 1등, 주현미가 2등, 금잔디가 3등. 보름달을 쳐다보면서 지남날을 회상(회상)하고, 흘러간 옛 노래를 듣자니 感懷(감화)가 새롭구나. 6km의 산보가 즐거운 밤이었다.



적벽대전(赤壁大戰)의 赤壁

<其二>
蘇東坡(소동파)의 赤壁賦(적벽부)

임술년 가을 7월 기망(16일)에 소동파가 손님과 더불어 적벽 아래서 노닐 새, 청풍(맑은 바람)은 천천히 불어오고 물결은 일지 않더라. 나와 손님이 술잔을 들고서, 명월의 시를 낭송하고 요조의 장을 노래했노라. 잠시 후, 동산 위에 달이 솟아 북두성과 견우성 사이를 배회하더라. 백로(흰 이슬)는 강에 비끼고 수광(물빛)은

하늘가에 닿았더라. 우리가 타고 있는 한 조각의 작은 배, 가는 대로 맡겨서 드넓은 공간을 넘어가노니,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모습이 마치 허공에 의지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듯. 어디서 멈춰서야 할 지 알 수가 없네. 인간세상 다 버리고 나 홀로 서서, 우화등선하는 것 같구나.

壬戌之秋(임술지추) 七月既望(칠월기망)에, 蘇子與客(소자여객)하여, 泛舟遊於赤壁之下(범주유어적벽지하)할 새, 淸風(청풍)은 徐來(서래)하고 水波(수파)는 不興(불흥)이라. 舉酒屬客(거주축객)하여, 誦 明月之詩(송 명월지시)하고 歌 窈窕之章(가 요조지장)이라라. 少焉(소언)에, 月出於東山之上(월출어동산지상)하여, 徘徊於斗牛之間(배회어두우지간)이더라. 白露(백로)는 橫江(횡강)하고 水光(수광)은 接天(접천)하도다.

함께 적벽 아래서 뱃놀이를 하면서, 人生의 덧없음을 깨닫고 시름을 잊는다는 것이 赤壁賦의 내용이다. 赤壁 하면 三國志에 나오는 赤壁大戰(떠오르고, 孫權(손권) 휘하의 名將 周瑜(주유)와 劉備(유비)의 책사 諸葛亮(제갈량)의 지략과 火攻戰略(화공전략)으로 曹操(조조)의 백만대군을 박살낸다. 빈 배로 십만 개의 화살을 구해오는 제갈량의 지혜도 잊을 수 없는 대목이다. 赤壁歌는 우리의 전통 음악인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이고, 赤壁大戰의 顛末(전말)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이 글은 黃州에서 유배생활을 할 적에 지은 것으로, 起承轉結(기승전결)의 “起” 부분이다. 賦(부)란 일정한 수의 漢字를 사용하여 韻(운)을 달고 對(대)를 맞춰 짓는 글이고, 賦 중에서는 적벽부가 가장 유명하다고 본다.

唐代와 宋代에 걸쳐 유명했던 文章家를 통틀어 “唐宋八大家”라 일컫고, 이 8명 중에 蘇軾(소식:東坡)뿐 아니라, 아버지인 蘇洵(소순)과 아우인 蘇轍(소철)도 포함되었으니, 蘇氏집안의 DNA가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 3父子를 “三蘇”라 부른다.

中國古典文學를 논할 때 漢文, 唐詩, 宋詞, 元曲(한문, 당시, 송사, 원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漢나라 시대에는 文章, 唐나라는 詩歌, 宋나라는 歌詞, 그리고 元나라는 戲曲(희곡)의 全盛期(전성기)라는 뜻이다.

소동파는 中國文學史에서 古今을 막론하고 그를 따를 사람이 없는 대문학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唐詩의 大家인 李白(이백)과 杜甫(두보)도 詩壇에서는 각각 詩仙과 詩聖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지만, 다른 장르의 문학에서는 그리 후한 점수를 얻지 못한 반면, 소동파는 시(詩), 사(詞), 부(賦), 산문(散文), 문장(文章) 뿐만 아니라 서예(書藝)와 그림에도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고 한다. 李杜(이두:이백과 두보)가 唐宋八大家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天冠 鄭良秀

의어인 밧줄을 낙타로 잘못 번역한 것은 그 내용(맛)에 별로 차이가 없으므로 그냥 눈감아 주고 있다.

실제로 황진이와 어우동이 서로 얼굴을 바꿨다(face off) 해도 황진이의 몸놀림은 은근(gentle)하고 어우동의 그것은 화끈(hot)할 것인즉 이윤홍 씨의 열려대로 어우동을 좋아하던 사내들이 황진이한테 물러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꿔 말해서 원작이 좋으면 번역자의 자질이 크게 문제 될 바가 없다는 말이다. 하긴 번역자가 진짜 문학에 재능

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쓸 것이지 구차하게 남의 작품을 번역이나 하고 있겠는가?

대부분의 번역가들은 창작능력보다 언어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주재님께 원작자의 음식에 손을 대어 맛을 버리게 하기보다 자신의 장기를 살려 그 음식을 보기 좋고 먹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독일의 술래들은 번역에서는 번역되는 자 아니면 번역하는 자 둘 중의 하나는 죽게 되어 있다고 했으나 원작자를 죽이는 번역은 진정한 의

미의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번역의 참모습은 원작자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길이다. 즉 본래의 맛을 유지하면서 맛을 부리라는 말이다.

뜻은 제한되어 있으나 말은 무궁무진하므로 번역가가 맛을 내려면 실력이 달려서 그렇지 결코 재료가 모자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맛있는 글을 쓰려면 출발에 대한 이해력, 도착에 대한 자긍심과 문장력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의 필요하나 이 또한 문학적 소양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등가 이론을 설파한 E. 니

다는 일찍이 번역가를 멋진 스타일리스트(stylist)에 비견했다.

평자가 접한 번역 시 중에서 이상과 같은 무기교의 기교를 마음껏 구사한 시한 수를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존재의 빛-

원작 김후란

새벽별을 지켜본다 (25 페이지 계속)



김기훈 (상대 52)

미국에 온지 만 60년이 되었다. 그동안 이나라에서 배운 것과 체험한 교훈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골라보았다.

1. 친구

아주 친한 친구집에서 며칠동안 폐를 끼치고 와서 감사편지를 보냈더니 “우리집에는 언제든지 와서 같이 지내도 좋다.”는 회답이다. 너무나 사려깊고 부부가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후대해 주며 고마운 마음과 함께 송구한 느낌도 가득하였다.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남긴 말, “집손님과 생선은 사흘이 지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명언을 인용하여 답장을 보냈다. 이에 대한 친구의 회신은 “아마 플랭클린의 손님은 목욕을 자주 하지않는 사람일게다. 조금도 염려할 것 없어!”라는 따뜻한 마음씨가 담백 담긴 편지를 받고 절로 빙그레 웃음을 자아내게하는 우정에 감사했다.

자고로 손님되는 것도 신경이 쓰이지만 손님 대접하는 일은 더욱 힘드는 일이다. 새익스피어는 “불청객은 떠나고 난 후에 환영을 받는다.”라고 언명했다. “집손님은 뒤통수를 볼 때가 가장 즐거우니라.”라는 우리말의 표현과 상통한다.

같은 친구가 우리를 방문 후 문안편지를 보내왔다. 언제 다시 자기집에 찾아오느냐고, 여전히 확실(鑿鑿 = 늑어도 기력이 정정하고 원기가 왕성함)의 부부이니 건강할 동안 여행을 하여 인생을 즐겁게 보내는 것이 어떠냐”라는 초청이다. 필자가 모르는 새로운 단어도 알게 되었으며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이 부부의 사려깊은 특별배려가 우리를 격려해주고 행복을 안겨주기도 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실감난다. 심리학자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100리(40 km, 25마일) 이내에 살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거리의 원근을 막론하고 친구의 친절한 한 마디가 예상외의 큰 격려가 된다.

2. 사해와 야구

사해 (死海)는 이스라엘과 요르단국 사이에 있는 1,050 평방미터의 크기, 깊

삶의 슬기

이가 해 면 아래로 396m 이며 요르단강의 중착 “호수”이다. 하루 13.5 mm 나 증발 된다. 특징은 물이 흘러들어가기는 하지만 빠져나가질 않으며 오랜 세월동안 소금이 누적되어 평균 연분이 25%나 된다. 문자 그대로 모든 생물이 생존하지 못한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절로 물에 뜨게 된다. 한 여자분은 시험삼아 수영에 성공했지만 머리에 스며든 소금을 씻어버리는데 2

눈에는 빛이 있고 마음 속에는 항상 노래가 있다.
이렇듯 적극적인 인생관은 낙천적인 성격으로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있다.
남이 존경하고 따르는 성숙한 성격의 소유자로
지도자적 구실을 잘 수행하는 존재가 된다.

~ 3일 걸렸다고 한다.

야구는 농구와 미식축구와 함께 미국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전 세계에 소개가 되었다. TV로 많은 경기가 중계방송이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일본에서는 고교의 전국시험 때에는 열광적으로 팬들이 TV 앞을 떠나지 않는다. 전화로 통화할 일이 있으면 중계방송 때 집으로 걸면 어김없이 통화가 될 정도이다.

사해는 받기만 하는 사람의 상징이다. 대인 관계에서 남에게 베풀줄 모르는 “죽은” 성격이다. 인생하기 그지없는 구두쇠요, 자아 중심으로 이타심이 없다. 자선이나 동 정심을 발휘하지 못하기애 누가 보아도 답답하다. 타협이 잘 안된다. 앞뒤가 꼭 막힌 고집쟁이요, 융통성도 없다. 주위의 실정에는 무관심하여서 찰스 디킨슨의 명작 Christmas Carol의 주인공 “스쿠루지”가 세 가지 유령을 만나기 이전의 성격 그대로이다.

반면 야구선수수는 누구나 한 손으로 공을 받고 다른 손으로 던진다. 받을뿐만 아니라 잘 베푸는 적극성을 보여준다. 남에게 줄수록 그 결과는 놀라운 곱절의 만족과 보람이 수반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은 교훈을 실감한다.

이런 가혹한 행위는 우리가 늘 목격하는 바이다. 신도들이 교회나 사찰에 자유의사로 헌금하는 사실, 개인이나 자선가들은 불우한 동족을 위해 회사하는 일, 졸업생들이 후학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기부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서울대 동창회보를 통하여 늘 목격하는 바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실정, 그리고 고아와 무숙자들을 잊지 않는다. 국제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천재지변이 있을 때 인류애에 입각한 해외 원조도 아끼지 않는다. 이런 행위가 야구선수들이 보여주는 교훈이며 삶의 보람과 의의를 갖게 된다.

남을 도우는 것이 곧 자기자신을 도우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은 다음 실화에 서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

친구 두 사람이 스키를 즐기고 있었다.

하다는 성악설 (性惡說)을, 맹자 (孟子)는 반대로 사람의 본질은 선하다는 성선설 (性善說)을 각각 주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스의 유대인 6백만의 대학살이 진행되고 있을 때 “안네 프랭크의 일기”(1942년 6월 12일 ~ 1944년 8월1일까지)의 저자를 포함한 8명의 유대인이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텔담의 “숨은 집” 다락방에서 피신생활을 했었다. 매 순간마다 불안, 공포, 불편, 무자유 등 온갖 고생과 고난으로 최저의 생활을 계속하다가 불행히도 종전 1년 전에 발각 (통설은 밀고) 되어 버렸다. 강제수용소에서 15세의 짧은 생애를 마친 안네 프랭크도 그녀의 글에 “인간은 본성이 선하다.”라고 기록했었다. 고초의 연속이었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인류에 대해 맹자와 같은 착한 생각을 소유했었다.

적극적이요 낙관적인 사람은 인생을 기쁨으로 산다. 소극적이요 비관자는 삶이 괴롭다. 전자는 아무 거리낌 없이 걱정대신 삶을 즐기고 후자는 염세적 (厭世的)으로 산다. 낙관자는 비록 실패가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전진한다. 누구를 만나도 항상 장점을 보고 화평과 조화를 누린다. 불행한 일보다 축복받은 사실을 해아린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교훈한다. 여기서 “범 사”라고 한 것이 영어 성경에는 “어떠한 경우에 처해있든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일단 말은 일은 비록 어려운 형편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을 완수한다. 눈에는 빛이 있고 마음속에는 항상 노래가 있다. 이렇듯 적극적인 인생관은 낙천적인 성격으로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있다. 남이 존경하고 따르는 성숙한 성격의 소유자로 지도자적 구실을 잘 수행하는 존재가 된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Henry W. Longfellow, 1807~82)는 “비록 소낙비가 쏟아지는 먹구름이 있을지라도 그 위에 올라가면 태양은 언제나 밝게 빛나고 있나니.”라고 읊었다. 이는 비행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썼기 때문에 그의 비상한 통찰력과 식견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낙관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마음속에 빛나는 태양을 찾게 해준다. 삶이 빛나고 아름답기만 하다.

3. 낙관적인 인생관

쌀통이 반쯤 차있으면 비관자는 윗쪽이 비었다고 보지만 낙관자는 아직 쌀이 반이나 남았다고 지적한다. 같은 현상이지만 소극적으로 보느냐,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필자도 어언 80고개를 넘긴지 수년이 되어 이제는 적극적이요 낙관적인 인생관을 갖게 된 것을 고백한다. 100세에 작고한 미국 배우 George Burns는 그가 80대가 되었을 때 “이제 나의 혈압을 올리는 친구들이 거의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절로 낙관자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순자 (荀子)는 인간의 본성이 악

사람들이 서로 기댈 어깨가 그리구나

적막한 이 시간
깨끗한 돌계단 틈에
어찌다 작은 풀꽃
놀라움이듯

하나의 모습
존재의 빛
모든 생의 몸짓이
소중하구나

-LIGHT RAY OF BEING-

Translated by Kyung-Nyun Richard

I keep a watch on the morning star

dear all
we miss each other's shoulder to lean on

at this still hour
as small wild flowers
found in between the clean steps of
a stone stairway
surprise us

one life
a light ray of being
all expression of life
are precious

얼마나 유연한 번역인가?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단어도 초등학교고 기사 식당의 순댓국이나 시장 바닥의 막국수를 찾아다닌다. 아가씨와 데

일컫는 말이나 두 개를 같이 써서 가버운 (경쾌한) 빛이라는 의미도 나타내 주고 있다. 원작자가 의도한 밝고 상서로운 빛에 잘 부합되는 번역이다. ‘사람들아’를 ‘ladies and gentlemen’ 또는 ‘you guys’라 하지 않고 ‘dear all’이라 한 것도 얼마나 소박하면서도 품위 있는 표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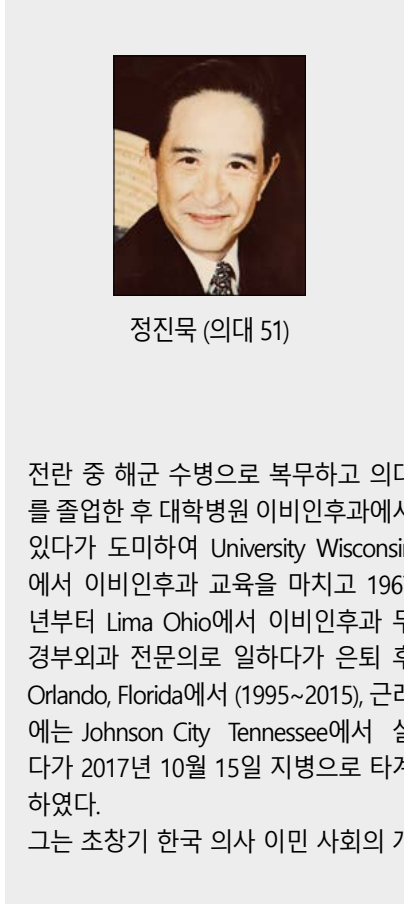
“Still hour”는 “young night” 등에서와 같은 시어(詩語)이다. “놀라움이듯”을 어떻게 표현했나 보았더니 한글의 끝말을 영어의 첫머리로 끌어올려 “as small wild flowers ~~~ surprise us”라고 해서 문법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게 해 놓았다. 원작에서 “사람들아”와 “하나의 모습”은 별로 그 짝짓기(pairing)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으나 영어로 “dear all”/ “one life” 하니까 아주 근사한 어울림(matching)이 되는 것 같다.

원문에 있는 “어찌다”(occasionally)는 생각을 해야 깔끔하고 원문에 없는 “found”(찾아낸)는 집어넣어야 힘을 받쳐준다. 이를 poetic license(시인의 특권)처럼 translatve license (번역가의 특권)이라 하면 어떠할지(?). 원작자는 운에 그리 신경을 쓴 것 같지 않지만, 번역자는 “star ~ hour ~ flow-ers”, “steps of ~ life ~ life”, “lean on ~ being”, “surprise us ~ precious” 같이 rhyme(각운)도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김후란 시인은 돌계단 틈에 핀 작은 풀꽃에서 생명을 보았고 김경년 고수는 새벽 별빛에서 인생을 보았다. 맛에다 맛을 더한 셈이다.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은 불편함과 불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사 식당의 순댓국이나 시장 바닥의 막국수를 찾아다닌다. 아가씨와 데

(from page 17)
comfortable lodging in Paris and attached to a workshop in the Conservatoire des Arts et Métiers in Paris. By 1805 Jacquard had eliminated the paper strip from Vaucanson's mechanism and returned to using Falcon's chain of punched cards (Figure 6). He added a series of punch cards to control the sequence of movements and the weaving of patterns and reduce the heavy manual labor component in the process. The result was a machine that permitted weavers to focus on the quality of designs and standardize production. He presented his rich fabric to the Empress Josephine. The result pleased Napoleon, who ordered a number of the looms to be built according to Jacquard's specifications. In 1806 the French government specified that the Jacquard loom was public property and awarded him an annual pension and a royalty on each machine that was constructed.

Gabriel Detilleu, Jacquard studied Vaucanson's loom, which was stored at the Conservatoire des Arts et Métiers in Paris. By 1805 Jacquard had eliminated the paper strip from Vaucanson's mechanism and returned to using Falcon's chain of punched cards (Figure 6). He added a series of punch cards to control the sequence of movements and the weaving of patterns and reduce the heavy manual labor component in the process. The result was a machine that permitted weavers to focus on the quality of designs and standardize production. He presented his rich fabric to the Empress Josephine. The result pleased Napoleon, who ordered a number of the looms to be built according to Jacquard's specifications. In 1806 the French government specified that the Jacquard loom was public property and awarded him an annual pension and a royalty on each machine that was constructed.



정진묵 (의대 51)

전란 중 해군 수병으로 복무하고 의대를 졸업한 후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있다가 도미하여 University Wisconsin에서 이비인후과 교육을 마치고 1967년부터 Lima Ohio에서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 전문의로 일하다가 은퇴 후 Orlando, Florida에서 (1995~2015), 근래에는 Johnson City Tennessee에서 살다가 2017년 10월 15일 지병으로 타계하였다.

그는 초창기 한국 의사 이민 사회의 개

정진묵 동문 별세

(- 2017년 10월 15일)

척자며 한인사회의 리더이다. 한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교실 등 국내외 이비인후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유가족으로 이화여대 약대를 나온 부인 이학순 여사와 4녀와 사위 등, 수 많은 손자, 손녀, 증손자가 있다. 박윤수 초대 미주서울대학교 동창회장도 가까운 지인의 한분이고 고장도영 장군과는 사돈 간이다. 취미는 한시 연구, 한문 서예로서 작품을 북경 국제 전시회에도 출품했다. 장례는 17일 본인의 요청으로 겸소하게 가족장으로 진행되었다.

[글: 의대 시계탑 편집장, 서윤석]

이트할 때는 유명 호텔의 식당에 가서 양손을 놀려야 품이 난다. 요즈음은 호텔 음식도 먹을 만하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맛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고 맛을 너무 내다보면 가량이가 찢어진다. 서민들에게는 그냥 대중음식점이 제격이다.

<Mz 황> 얘기도 마찬가지로이다. 얼굴이 바편다고 그 본성이 바뀌겠는가? 맛이 어떨고 맛이 어찌고 씨알머리 없는 입방아만 찿지 말고 자기가 선택한 여인이나 잘 모셔 보라는 말이다. 맛은 육체고 맛은 정신이란다. 맛은 들이기 나름이고 맛은 부리기 나름이다. 맛과 맛을 골고루 갖춘 아낙, 모든 사내들의 꿈이

다. 맛과 맛을 즐길 수 있는 번역 또한 모든 번역가들의 바람이 아닐 수 없다. 맛 중의 최고는 은은한 맛이고 맛 중에 제일은 축 늘어진 맛이다.

유연하다는 말은 여유가 있다는 말이다. 여유가 있다는 말은 넉넉하다는 말이다. 넉넉하다는 것은 야옹다옹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저 줄 아량이 있다는 뜻이다. 여유 있는 번역가는 원작자와 경쟁하지 않는다. 때로는 상대방 (원작자)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야 한다. 번역의 맛은 오래된 장맛같이 은근히 우러나야 하며 번역의 맛은 검양지역에 있다. 살신성인이면 더 좋다. 끝

viewed Jacquard's new loom (Figure 6). On April 15, 1805, the emperor granted the patent for Jacquard's loom to the city of Lyon. In return, Jacquard received a lifelong pension of 3,000 francs; furthermore, he received a royalty of 50 francs for each loom that was bought and used during the period from 1805 to 1811. (http://www.worldhistory.biz/modern-history/83068-joseph-marie-jacquard-1752-1834.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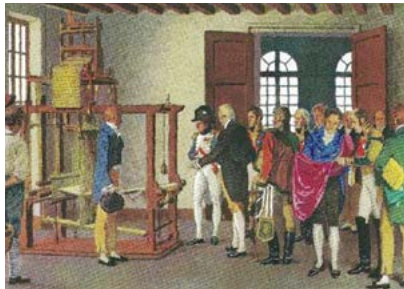


Figure 6. Jacquard introducing Napoleon to his newly-invented loom (watercolor by Philippe Ledoux, Paris). (http://www.pianola.org/history/history_jacquard.cfm)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전회장단 이월금	오인환 (문리 63) 100 서동영 (사대 60) 200				
총동창회 보조금	장학금 김은섭 (의대 53) 100 이건일 (의대 62) 125 임필순 (의대 54) 100	강정수 (문리 62) 125 이성형 (공대 57) 150		루이지애나 시카고 조형원 (약대 50) 500	플로리다 커네티컷 유시영 (문리 68) 200
총동창회 오찬 협찬	수재민 돕기 후원금 윤상래 (NE) 300 정정욱 (NE) 200 고일석 (NE) 200	뉴욕 강에드 (사대 60) 200 김명철 (공대 60) 200 김재경 (농대 58) 200 배정희 (사대 54) 200 이경림 (상대 64) 185 이운순 (의대 52) 200 이전구 (농대 60) 1,000 이준행 (공대 48) 2,000 정창동 (간호 45) 75 최한용 (농대 58) 500			휴스턴 진기주 (상대 60) 500
업소록 광고비	서동영 (사대 60) 240 신동국 (수의 76) 240 이경림 (상대 64) 240 이종묘 (간호 69) 240 정재훈 (공대 64) 240 주기록 (수의 68) 240	김문소 (NE) 100 손재욱 (PA) 1,000 신응남 (NY) 200 합계: 2,000		워싱턴 DC 관철수 (의대 68) 200 김상순 (상대 67) 200 송재용 (의대 69) 200	(강영빈 동문 후원금 \$2,000 은 모교 동물학과, 생물학과 58 학번 동문이 요청하면 동창회비를 대납해 드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광고비	후원금 DUO Info. 1,200 DUO Info. 400 DUO Info. (10) 400 신응남 (농대 70) 1,200	나감주 김영순 (음대 59) 200 김원탁 (공대 65) 200 민수봉 (상대 55) 25 이범모 (치대 74) 200 이범식 (공대 61) 200 이영일 (문리 53) 200 임창희 (공대 73) 100 전경철 (공대 57) 200 정재훈 (공대 64) 110 최충권 (문리 59) 20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1,000 김은한 (의대 60) 750 김제호 (공대 56) 100 윤상래 (수의 60) 40,000 윤영자 (미대 60) 100 이재신 (공대 57) 2,000 이희규 (공대 69) 200 정선주 (박영철) 3,000 정정욱 (의대 60) 1,000 정태영 (문리 71) 100 최선희 (문리 69) 200 최홍균 (공대 69) 1,000	워싱턴 주 하주홍 (경영 77) 25	필라델피아 김태환 (법대 48) 200 서중민 (공대 64) 150 송영두 (의대 56) 500 제갈은 (문리 59) 150 조화연 (음대 64) 15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75 (2017. 7 ~ 2018. 6)	☐ \$240 (2017. 7 ~ 2018. 6)	☐ Scholarship Fund (장학금) \$_____
☐ \$500	☐ \$150 (2017. 7 ~ 2019. 6)	☐ \$480 (2017. 7 ~ 2019. 6)	☐ Charity Fund (나눔) \$_____
☐ \$1,000	☐ \$3,000 (종신이사회비)	일반 광고 문의:	☐ Brain Network 후원금 \$_____
☐ \$_____		general@snuuaa.org	☐ 모교발전기금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크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 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uaa.org

한글이름:	영어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 E-mail로만 동창 회보를 받기 원합니다.				
Cell Phone (option):				
주소, 직장, 전화번호 변경 사항 (우측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동창회비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 표: 2차 회기까지 모두 내신 분

남가주 SCA/NV	손학식 (공대 61) 신동국 (수의 76)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양승문 (공대 65) 양운택 (의대 57) 양은혁 (상대 56) 양창호 (상대 54) 오양숙 (간호 60) 위종민 (공대 64) 유덕훈 (상대 48) 유진형 (상대 47) 윤경민 (법대 55) 윤용길 (공대 55) 윤희성 (치대 65) 이건일 (의대 62) 이기재 (사대 52) 이기준 (법대 54) 이범모 (치대 74) 이범식 (공대 61) 이성자 (간호 76) 이소희 (의대 61) 이승희 (간호 47) 이영일 (문리 53)* 이원익 (문리 73) 이창길 (치대 63) 이정근 (사대 60) 이정화 (공대 52) 이정희 (음대 55) 이재권 (법대 56) 이재신 (농대 58) 이종묘 (간호 69) 이준호 (상대 65) 이중희 (공대 53) 이준호 (상대 65) 이중희 (공대 53) 이재진 (문리 55) 이해영 (공대 56) 이호진 (간호 74) 이홍표 (의대 58) 이휘영 (법대 59) 이희충 (공대 68) 임동규 (미대 57) 임동호 (약대 55) 임문빈 (상대 58) 임진환 (치대 68) 임창희 (공대 73) 장인숙 (간호 70) 전경철 (공대 57) 전낙관 (사대 60) 전상욱 (사대 52)* 정길택 (수의 54) 정상진 (상대 59) 정연웅 (상대 63) 정예현 (상대 63) 정재훈 (공대 64)* 정태무 (사대 44) 정형민 (문리 71) 정 황 (공대 64)* 제영태 (가정 71) 조동준 (의대 58) 조만연 (상대 59) 조순자 (치대 57) 조정식 (공대 60) 조태준 (문리 69) 조임현 (간호 72) 조재길 (사대 61) 주정래 (상대 65) 최경홍 (공대 60) 최 영 () 최동욱 (의대 59) 최영근 (사대 61) 최재윤 (인문 54) 최종권 (문리 59) 한은실 (음대 61)	한효동 (공대 58) 허영진 (문리 61) 홍동식 (법대 64) 홍수용 (의대 59)*	북가주 SAN FRANCISCO	강명식 (의대 61) 강정수 (문리 62) 강재호 (상대 57) 권오형 (사대 61) 김병덕 (법대 58) 김병호 (상대 57) 김정희 (음대 56) 김현왕 (공대 64) 김희봉 (공대 68) 남광순 (음대 64) 박경룡 (약대 63) 박종성 (법대 53)* 부영무 (치대 72) 손창순 (공대 69) 송영호 (상대 57) 안호삼 (문리 58) 온기철 (의대 65)* 유두영 (공대 55) 이강우 (문리 59)* 이관모 (공대 55) 이성형 (공대 57)* 임정란 (음대 76) 정지선 (상대 58) 정진수 (공대 56) 정유석 (의대 58) 최경선 (농대 65) 홍검삼 (문리 61) 황동화 (의대 65)	김진자 (간호 60) 김태일 (공대 68)* 김해암 (의대 52) 김현중 (공대 63)* 김훈일 (공대 60) 김희국 (약대 54) 라준국 (공대 48) 맹광호 (문리 71) 문석면 (의대 52) 민발식 (의대 60) 민병갑 (사학 63) 권오현 (의대 59) 박수안 (의대 56) 박순영 (법대 56) 박영태 (상대 63) 박진우 (상대 77) 반영철 (약대 54) 방준재 (의대 63) 배명애 (간호 47) 배상규 (약대 61) 배정희 (사대 54) 변해순 (간호 68) 서병선 (음대 65) 서정용 (약대 63) 선종철 (의대 57) 성기로 (약대 57) 손갑수 (약대 59) 손경택 (농대 57) 송영순 (사대 60) 신달수 (공대 59) 신응남 (농대 70) 양명자 (사대 63) 우대식 (?) 우상영 (상대 55) 유영호 (의대 52) 유재섭 (공대 65) 윤봉근 (사대 54) 윤신원 (의대 50) 윤영설 (의대 57) 윤인숙 (간호 63) 이경림 (상대 64) 이경태 (공대 63) 이대영 (문리 64) 이성근 (의대 60) 이승일 (경영 66) 이영숙 (간호 56) 이운순 (의대 52) 이전구 (농대 60) 이정은 (의대 58) 이준행 (공대 48)* 이중준 (공대 56) 이중환 (법대 51) 이태상 (문리 55) 이태안 (의대 61) 임공세 (의대 61) 장화자 (간호 60) 송창원 (문리 53) 왕규현 (의대 58) 주한수 (수의 62) 황효숙 (사대 65)	뉴잉글랜드 MA/RI/NH/ME/VT	고일석 (보건 69) 곽세홍 (공대 75) 김광수 (자연 73) 김문소 (수의 61)* 김선혁 (약대 59) 김정환 (농대 52) 김제호 (상대 56) 김 현 (농대 62) 박종진 (의대 56) 송미자 (농대 62) 윤상래 (수의 62) 윤영자 (미대 60) 반영철 (공대 67) 윤은상 (상대 66) 이강원 (공대 66) 이영인 (사대 74) 이의인 (공대 68) 이정수 (공대 71) 이희규 (공대 69) 장수인 (음대 76) 장용복 (공대 58)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조성호 (공대 85) 최선희 (문리 69) 최홍균 (공대 69) 이민우 (의대 61) 이덕수 (문리 58) 이성길 (의대 65) 이승자 (사대 60) 이승훈 (공대 66) 이시영 (상대 46) 이영철 (공대 60) 이용수 (약대 51) 이윤모 (농대 57) 이정화 (음대 56) 이종필 (의대 65)* 임병훈 (의대 54) 임현재 (의대 59) 장시경 (약대 58) 장영희 (의대 57) 장윤일 (공대 60) 조대현 (공대 57) 조형원 (약대 50) 채무원 (의대 59) 최혜숙 (의대 53) 한의열 (공대 62) 함성덕 (문리 55) 황치룡 (문리 65) 하계현 (공대 64)	강영국 (수의 67) 강창만 (의대 58) 고병철 (법대 55) 구경희 (의대 59)* 김규호 (의대 58) 김갑준 (의대 57) 김사직 (상대 59) 김성일 (공대 68) 김승주 (간호 69) 김일훈 (의대 51) 김정일 (의대 57) 김재석 (의대 61) 김주호 (의대 58) 김현배 (의대 66) 민영기 (공대 65) 박준환 (의대 55) 박창욱 (공대 56) 박영섭 (의대 54) 송재현 (의대 46) 신동화 (문리 55) 심상구 (상대 63) 안신호 (의대 53) 안은식 (문리 55) 오동환 (의대 65) 오봉완 (법대 52)* 유동환 (수의 68) 이갑조 (간호 51) 박 철 (공대 57) 이덕수 (문리 58) 이성길 (의대 65) 이승자 (사대 60) 이승훈 (공대 66) 이시영 (상대 46) 이영철 (공대 60) 이용수 (약대 51) 이윤모 (농대 57) 이정화 (음대 56) 이종필 (의대 65)* 임병훈 (의대 54) 임현재 (의대 59) 장시경 (약대 58) 장영희 (의대 57) 장윤일 (공대 60) 조대현 (공대 57) 조형원 (약대 50) 채무원 (의대 59) 최혜숙 (의대 53) 한의열 (공대 62) 함성덕 (문리 55) 황치룡 (문리 65) 하계현 (공대 64)	하인환 (공대 56)	오레곤 OR/ID	김상만 (음대 46) 김상순 (상대 67) 성성호 (사대 67) ShinJD (인문 58) 오경호 (수의 60) 정성국 (인문 73) 한국남 (공대 57) 한영준 ()	워싱턴 DC DC/MD/VA/WV	강연식 (사대 58) 고무환 (법대 57) 곽명수 (문리 65) 권오근 (상대 58) 권철수 (의대 68) 김내도 (공대 62) 김용덕 (의대 53) 김진수 (의대 60) 김 철 (의대 62) 남준일 (사대 69) 도상철 (의대 63) 박필영 (문리 59) 박 철 (공대 57) 박홍후 (인문 61) 방정화 (의대 61) 백 순 (법대 58) 서기병 (상대 55) 서윤석 (의대 62) 서휘열 (의대 55) 석균범 (문리 61) 송윤정 (인문 89) 신용계 (의대 62) 송영두 (의대 56) 송성균 (공대 50) 서재진 (공대 47) 유덕영 (공대 57) 유정식 (수의 60) 유홍열 (자연 74) 원종민 (약대 57) 이규호 (공대 52) 오인환 (문리 63) 이규양 (문리 62)* 이재승 (의대 55) 조영호 (음대 56) 전희순 (간호 76) 조원자 (농대 62) 조화연 (음대 64) 지홍민 (수의 61) 최종무 (상대 63) 최종문 (공대 61) 최현태 (문리 62) 한용오 (보건 70) 한인섭 (약대 63)	김인기 (문리 58)	조지아 GA/AL/MS	강창석 (의대 73)* 김순옥 (의대 54) 김영서 (상대 54) 김용진 (문리 48) 오경호 (수의 60) 유성무 (상대 66) 윤민자 (음대 65) 윤영돈 (법대 59) 이종자 (의대 54) 임수암 (공대 62) 주중광 (약대 60) 최재학 (사대 56) 최종진 (의대 63) 한 호 (상대 62) 허지영 (문리 66)	커네티컷 CT	김기훈 (상대 52) 유시영 (문리 68)	캐롤라이나 SC/NC/KY	김기현 (문리 52) 마동일 (의대 57) 성예경 (치대 54) 이달호 (사대 45) 이범세 (의대 56) 이석형 (사대 56) 이항열 (법대 57) 한광수 (의대 57)*	테네시 TENNESSEE	김경덕 (공대 75)	하와이 HAWAII	구해근 (문리 60) 김달욱 (사대 55) 손민욱 (문리 52) 손호민 (문리 52) 유재호 (문리 57) 장광수 (사대 50) 최경윤 (사대 51)	하트랜드 IA/MO/KS/NE/AR/OK	구명순 (간호 66)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김승희 (법대 55) 백산옥 (문리 51) 이상강 (의대 70) 이영신 (의대 54) 차봉희 (의대 51)	휴스턴 HOUSTON	김태훈 (공대 57) 김한섭 (의대 53) 박석규 (간호 59) 박유미 (약대 62) 박태우 (공대 64) 유한창 (공대 69) 이규진 (약대 60) 이길영 (문리 59) 이찬주 (문리 63) 이학호 (수의 59) 임순덕 (의대) 진기주 (상대 60) 최관일 (공대 54) 최성호 (문리 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2019)

오선웅 (의대 63)

윤제중 (농대 54)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팅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오홍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안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중모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 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충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동물병원 / 치과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5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MD-VA-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팅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on.com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팔영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봉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광고문의: (484)344-5500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61 명					
남가주 김재영 (농대 62) 김정희 (음대 56) 노명호 (공대 61) 박윤수 (문리 48) 박중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청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한귀희 (미대 68) 한홍택 (공대 60)	윤정옥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형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미네소타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조지아 주중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종민 (공대 64) 손재옥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하트랜드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 종신이사 (교인) - - * 표: 한번이상 내신 분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수석 부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황보민영 (공)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IT 국장: 곽세홍 (공)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김정현 (공), 신응남 (농) 편집 위원: 곽세홍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김제성 (공), 배지선 (수), 장수인 (음), 정태영 (문), 이영인 (사), 윤용훈 (공), 허유선 (가정), 홍선례 (음), 한정민 (농)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위원장: 김정현 (공)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회칙 위원회: 위원장 한재은 (의)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이민연 (법), 함은선 (음)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사회 봉사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수)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박영철 (농)

미주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성주경 (상대 68)	213-500-7977	jksung@skcinsurance.com	Feb-Jan
	차기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3801	gamkocpa@hot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희례 (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이대영 (문리 64)	516-770-0070	dyldyl88@hot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박영철 (농대 64)	781-674-2498	youngpark6@yahoo.com	Jul-Jun
	차기회장				
달라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eko@gmail.com	Jan-Dec
룩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운 (공대 77)	480-207-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정석 (공대 87)	858-243-3254	jslee029@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한경진 (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홍혜례 (사대 72)	773-896-7987	hyeryehong@yahoo.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안선미 (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근 (자연 82)	703-785-8467	saekewn@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하주홍 (경영 77)	402-631-3567	jh.ha@live.com	Jan-Dec
	차기회장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mrmsft@hotmail.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김성근 (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박혜란 (음대 84)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Jul-Jun
	차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조동건 (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net	Jul-Jun
	차기회장	정지영 (법대)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를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Sep-Aug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942	g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휴스턴 태풍 피해 동문 돕기 모금 캠페인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 동문 여러분,

8월 25일 휴스턴을 강타한 태풍 할비는 6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휴스턴 지역의 15가구 이상의 서울대 동문님도 정부가 지정한 곳이나 모텔 등에서 머무시며 홍수 보험을 들지 않아서 턱없이 부족한 재정으로 집이 복구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휴스턴 지부에서는 피해 동문님을 돕기 위해 \$7,000을 모금했습니다.

미주 동창회 나눔 위원회에서도 \$50,000을 11월 말까지 모금하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을 겨울이 오기 전 11월 말까지 전미주 동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 Payable to: SNUAA USA | 주소: 869 South Street, Fitchburg, MA 01420
· 마감일: 11월 30일 | 메모: 참고난에 "휴스턴 태풍 피해 돕기"로 표기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대인은 서울대 동문이 먼저 도움시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나눔위원회 위원장 | 윤상래, 제14대 미주동창회 회장



KISS®

“성장하는 기업”

25년간 세계 정상 of 뷰티브랜드로 성장한

여러분과 함께 자녀세대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62) 신규천 (73) 한규상 (84) 김영훈 (93)

KISS® KISS PRODUCTS, INC.,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 www.KISSusa.com